

#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4 Q  
2021  
vol.25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해외 VC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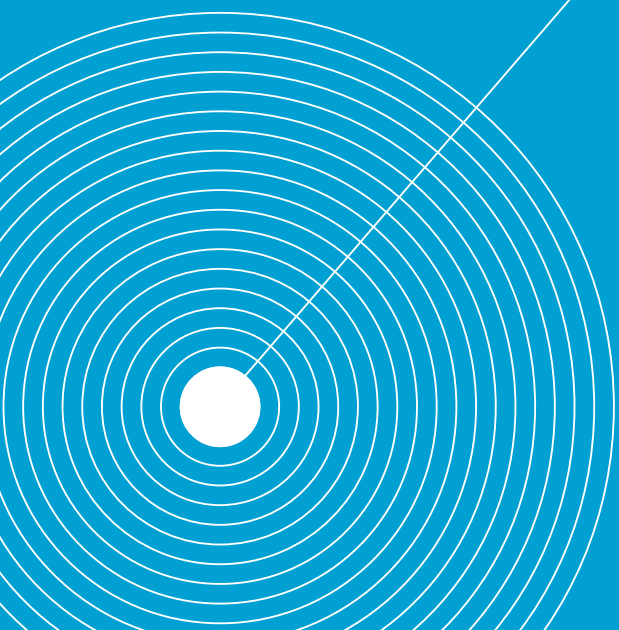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 관련 유의 사항

KVIC MarketWatch는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의 운용 성과를 공개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추천 또는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편,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및 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이를 통하여 지득 또는 파생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복제, 변형,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4Q 2021 VOL. 25

04 ←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18 ←  해외 VC  
시장 동향

62 ←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발행처  
한국벤처투자

발행인  
이영민

문의사항  
marketwatch@kvic.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빌딩

편집·기획  
한국벤처투자 www.kvic.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KVIC  
Market Watch

「KVIC MarketWatch」는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운용하며 쌓아온 시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계간 저널입니다.

#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 모태 출자펀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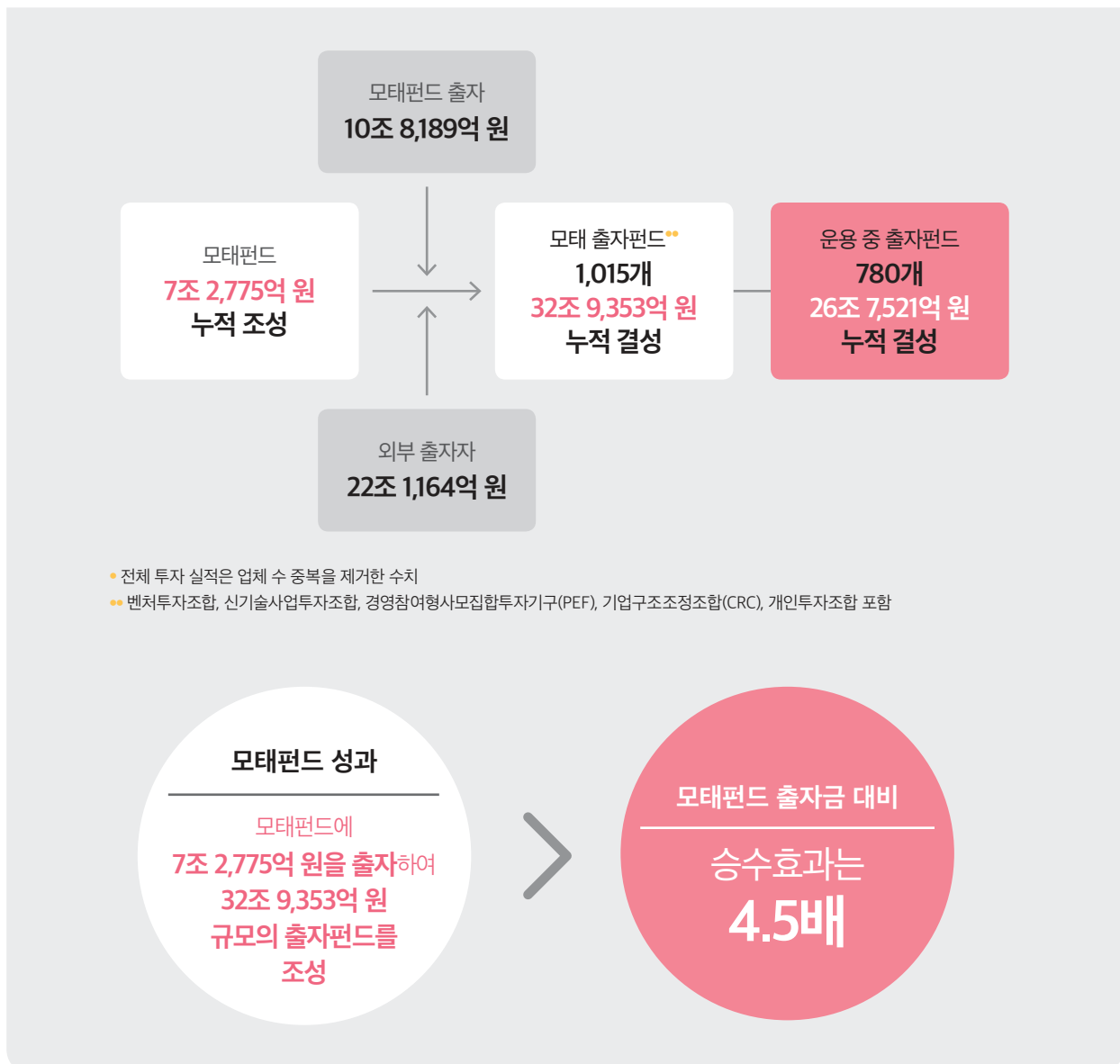
결성 /  
투자 /  
회수 동향 /

해당 보고서는 분기를  
기준으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1년 4분기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 모태펀드 개요

2021년 말 기준 한국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재원은 7조 2,775억 원이며, 22조 1,164억 원의 외부출자금을 유치하여 누적으로 32조 9,353억 원 규모의 출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이중 운용 중인 출자펀드는 780개, 26조 7,521억 원 규모이다. 모태펀드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15개\*\*의 출자펀드를 통해 8,373개사\*에 총 25조 3,382억 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그림 1 모태펀드 운용 현황



# 모태 출자펀드 결성

## ♣ 2021년 4분기 모태 출자펀드 신규 결성 조합

2021년 10~12월 신규 결성 펀드는 총 40개, 1조 2,687억 원 규모이다. 이중 가장 큰 규모로 결성된 펀드는 '키움뉴허어로4호스케일업펀드(GP:키움인베스트먼트)'로 1,400억 원 규모이다.

표 1 2021년 4분기 신규 결성 모태 출자펀드

(단위: 억 원)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 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중진	스케일업	키움뉴허어로4호스케일업펀드	벤처투자조합	키움인베스트먼트	1,400	500	10.07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벤처투자조합	하나벤처스	540	200	10.08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인사이트V3스마트(디지털) 헬스케어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인사이트에쿼티파트너스	318	100	10.08
중진	스케일업	에스브이 스케일업 펀드	벤처투자조합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1,300	500	10.19
중진	자조합출자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물산업 펀드)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305	150	10.29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어센도 그린뉴딜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어센도벤처스	387	112	11.03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데브 투자조합 7호	벤처투자조합	데브시스터즈벤처스	167	50	11.04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대한민국유틸리티바이오 헬스케어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유틸리티인베스트먼트	1,250	500	11.08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코리아언택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디티앤인베스트먼트	400	160	11.17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4차산업 스퀘어 투자조합 2호	벤처투자조합	스퀘어벤처스	100	40	11.17
중진	자조합출자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304	150	11.22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IBK-퀀텀 그린신산업펀드	벤처투자조합	퀀텀벤처스코리아	305	100	11.26
중진	소셜임팩트	센트럴소셜임팩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센트럴투자파트너스	167	100	12.03
중진	버팀목	카이 케이빅(KAI-KVIC) 점프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코리아에셋투자증권	400	200	12.15
중진	사회적기업	엑스트라마일 임팩트 5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엠와이소셜컴퍼니	60	45	12.20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2021토니비대면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토니인베스트먼트	400	160	12.27
중진	M&A	어니스트-신영 페이스 메이커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어니스트벤처스	510	200	12.30
청년	청년창업	인터밸류5호 Next Unicorn 청년창업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인터밸류파트너스	340	200	12.27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 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엔젤	대학창업	제이비(JB)기술지주 개인투자조합 제2호	개인투자조합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30	18	12.09
엔젤	대학창업	대경지역 고도기술창업기업 제2호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40	24	12.27
혁신모험	창업초기	씨엔티테크 제9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씨엔티테크	43	20	10.29
혁신모험	창업초기	디케이아이 그로잉 스타 6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대교인베스트먼트	250	100	11.26
혁신모험	창업초기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4호펀드	벤처투자조합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431	200	11.26
혁신모험	창업초기	서울대 STH 창업초기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서울대학교기술지주	81	30	12.03
문화	가치평가연계	로간1호 콘텐츠가치평가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로간벤처스	122	60	10.08
문화	모험콘텐츠	센트럴모험콘텐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센트럴투자파트너스	410	240	10.26
문화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피앤아이뱅크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130	75	11.04
문화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로간2호 콘텐츠재기지원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로간벤처스	137	75	11.08
문화	방송·OTT영상콘텐츠	가이아방송콘텐츠투자조합2호	벤처투자조합	가이아벤처파트너스	151	90	11.11
문화	모험콘텐츠	코나 모험 콘텐츠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코나벤처파트너스	159	110	12.13
문화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육성	미시간아시아문화중심 도시육성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미시간벤처캐피탈	333	100	12.29
영화	중저예산한국영화	센트럴중저영화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센트럴투자파트너스	130	76	11.26
스포츠	스포츠산업육성	인피니툼스포츠2호펀드	벤처투자조합	인피니툼파트너스	185	130	10.14
과기정통	공공기술사업화	케이에스타-미래 제1호 공공기술사업화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미래과학기술지주	200	100	11.29
국토교통혁신	국토교통혁신	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경남벤처투자	176	100	12.28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케이비-케이티비 기술금융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케이티비네트웍	550	34	11.29
특허	IP직접투자	아이디비이 글로벌 아이피 그로스 투자조합 2호	벤처투자조합	아이디벤처스	270	160	12.21
교육	대학창업	연세대학교기술지주 개인투자조합 YOUTH 4호	개인투자조합	연세대학교기술지주	44	24	10.29
교육	대학창업	충남대-로우 대학창업투자조합 1호	개인투자조합	충남대학교기술지주	20	13	11.01
해양	해양신산업	해양신산업등대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143	100	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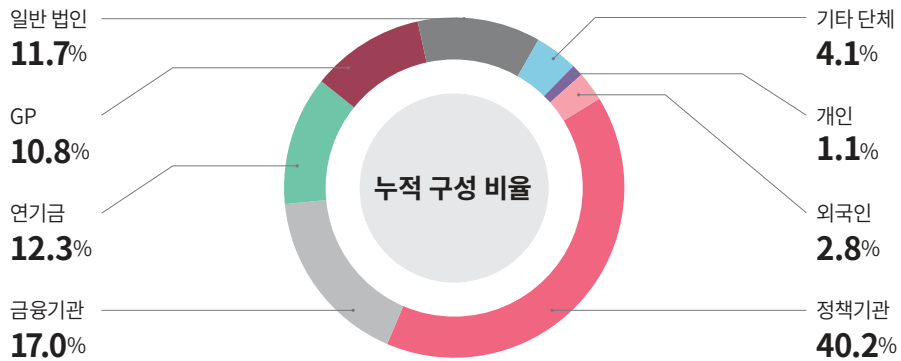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 ♣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누적)

2021년 12월 말 현재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누적)은 [그림 2], [표 2]와 같다.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13조 2,339억 원(40.2%)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금융기관 5조 6,037억 원(17.0%), 연기금 4조 438억 원(12.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 신규 결성된 출자펀드의 경우에는 정책기관 다음으로, 금융기관(8,081억 원), 일반법인(6,72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 %)



출처 한국벤처투자

• 결성연도 기준

표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 억 원)

구분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GP	일반 법인	기타 단체	개인	외국인	합계
21.12	18,851	8,081	3,725	4,142	6,725	1,056	728	63	43,372
누적	132,339	56,087	40,438	35,558	38,615	13,636	3,579	9,100	329,353

조합원 구분	상세 분류(KVCA 기준 참고)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기타 모펀드, 기금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연금, 공제회
GP	창투사, 신기술, LLC 등 업무집행조합원
일반법인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 단체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개인	일반개인
외국인	외국 소재 개인 및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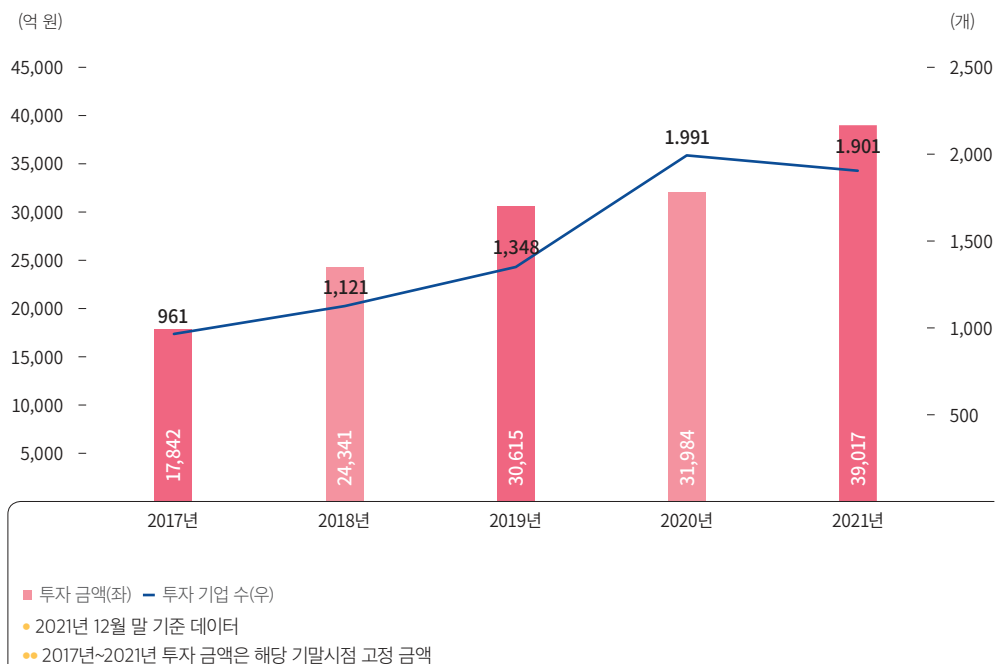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 모태 출자펀드 투자

## ♣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

2021년에는 483개 모태 출자펀드가 1,901개 기업에 총 3조 9,017억 원을 투자했으며, 전년 대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2% 증가하였으나 기업 수 기준으로는 4.5% 감소했다.

그림 3 최근 5년간 누적 투자 추이



출처 한국벤처투자

## ♣ 투자금액 상위 기업

2021년 모태 출자펀드에서 투자한 전체 투자 건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개의 투자기업당 평균 20.5억 원을 투자하였다. 투자금액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약 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억 원 증가했다. 투자금액 상위권 기업들의 업종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3 2021년 모태 출자펀드 투자금액 상위 10개사

(단위 : 개, 억 원)

순위	투자기업명	업종 분류(대)	업종 분류(중)	투자 출자펀드 수	투자금액
1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의료	의료용 물질/의약품	2	500
2	에스원피앤피	기타	목재/종이/인쇄/가구	1	271
3	시아스	기타	음식료	1	260
4	인플루엔셜	ICT서비스	소프트웨어	1	250
5	○○○○○	유통/서비스	도소매업	1	229
6	이문온시아	바이오/의료	의료용 물질/의약품	3	210
7	달리서스	유통/서비스	도소매업	5	204
8	○○○○○	전기/기계/장비	일반기계	2	180
9	업라이즈	ICT서비스	소프트웨어	6	179
10	○○○○○	유통/서비스	도소매업	3	167

출처 한국벤처투자

• 기업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을 비실명 처리함

## ♣ 업력별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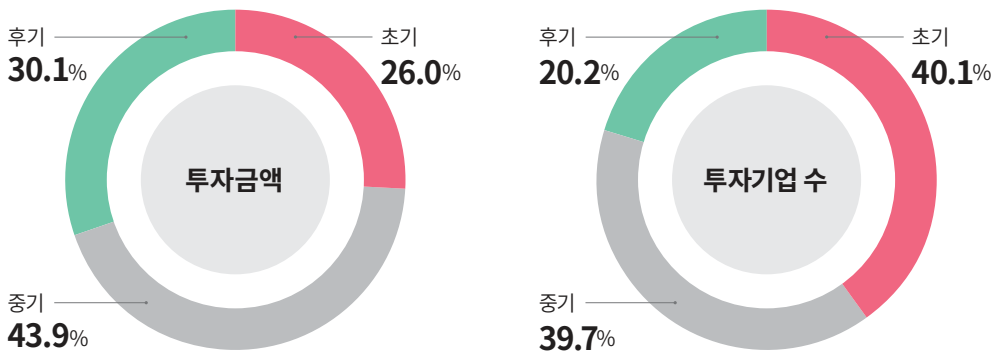
2021년 기준으로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를 업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에는 10,138억 원(26.0%), 3년 초과 7년 이하인 중기기업에 1조 7,141억 원(43.9%), 창업 후 7년 초과된 후기기업에 1조 1,738억 원(30.1%)이 투자되었다. 투자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기기업 772개사(40.1%), 중기기업 764개사(39.7%), 후기기업 388개사(20.2%) 순이다.

4분기에는 투자기업 수가 약 491개가 늘어나며, 투자금액 또한 직전분기 대비 1조 2,154억 원 증가하였다. 전 업력별 모두 투자기업 수와 투자금액의 증가율은 직전분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전체 대비 비중은 연중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년 대비로는 투자금액은 22% 증가한 반면 투자기업 수는 오히려 4.4% 감소하였다. 이는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분에 기인한다. 중기 및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반면, 초기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투자금액은 10.6% 감소한 1,203억 원, 투자기업 수는 24.0% 감소한 244개를 기록하였다.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업력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중기기업의 경우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이 17.3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약 29% 증가하였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현 추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4 2021년 모태 출자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 ♣ 지역별 신규 투자 및 업종별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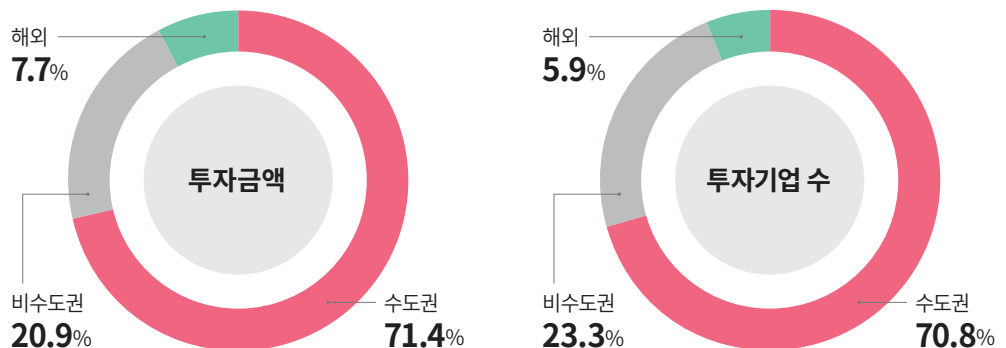
2021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를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 투자가 2조 7,831억 원(7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는 8,167억 원(20.9%), 해외 소재 기업 투자는 3,109억 원(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하였는데 주로 국내 투자 중심으로 늘어났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0% 중반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해외 투자의 경우 오히려 4%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수도권 내 투자금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전년 동기 대비 서울과 경기지역은 증가한 반면, 인천은 12.8% 감소하였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은 33.7% 증가한 반면 투자기업 수는 오히려 23.3% 감소하면서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10.5억 원 증가한 25.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4% 증가한 수치이다.

5대 광역시의 투자금액 규모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대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0.1% 증가한 2,367억 원이 투자되며, 5대 광역시 내에서는 가장 큰 투자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과 업체 수 모두 각각 26.1%, 14.1% 감소했으나, 4분기에 부산 지역 뉴딜 벤처펀드가 조성되면서 직전분기 대비해서는 66.4% 증가한 792억 원을 기록했다.

기타 지방은 200개 기업에 3,974억 원이 투자되며, 전체 지역 내에서 약 10.2%를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기업 수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투자금액은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투자금액 기준 가장 많은 투자금액을 기록한 곳은 760억 원이 투자된 충북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전남지역(370억 원, +281.4%)과 전북지역(503억 원, +114%) 순이다.

그림 5 2021년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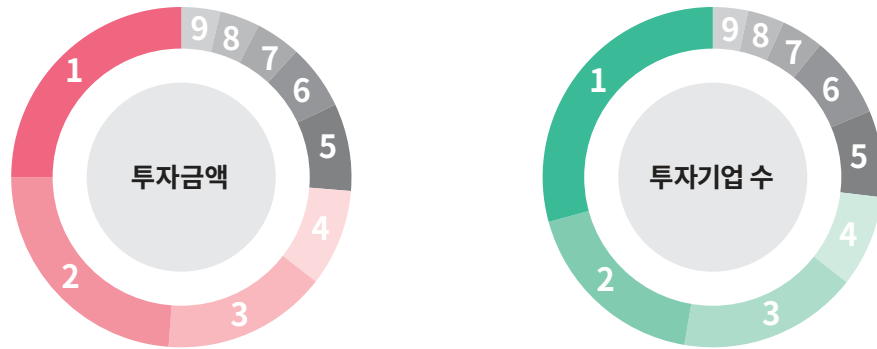
● 총 투자기업 수 1,901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지역 구분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5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지방)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세종

2021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ICT서비스로 총 9,752억 원이 투자되며 전체 투자 규모의 25.0%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는 바이오/의료 357억 원(23.8%), 유통/서비스 378억 원(15.7%) 순이다. 투자금액 상위 3개 업종은 연간 변동이 없었으며, 전체 투자금액의 64.5%를 차지했다.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바이오/의료가 26억 원으로 타 업종 대비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업종이 중기기업에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반면 화학/소재 및 전기/기계/장비의 경우 후기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 기준으로 해당 업종의 투자금액 중 화학/소재는 63.3%, 전기/기계/장비는 61.3%가 후기기업에 투자되었다.

그림 6 2021년 모태 출자펀드 업종별 신규 투자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 서비스	25.0
2	바이오/의료	23.8
3	유통/서비스	15.7
4	전기/기계/장비	9.2
5	기타	8.3
6	영상/공연/음반	6.2
7	ICT 제조	4.3
8	게임	3.8
9	화학/소재	3.7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 서비스	29.2
2	유통/서비스	18.1
3	바이오/의료	17.1
4	영상/공연/음반	8.7
5	전기/기계/장비	8.2
6	기타	7.8
7	ICT 제조	4.0
8	게임	3.5
9	화학/소재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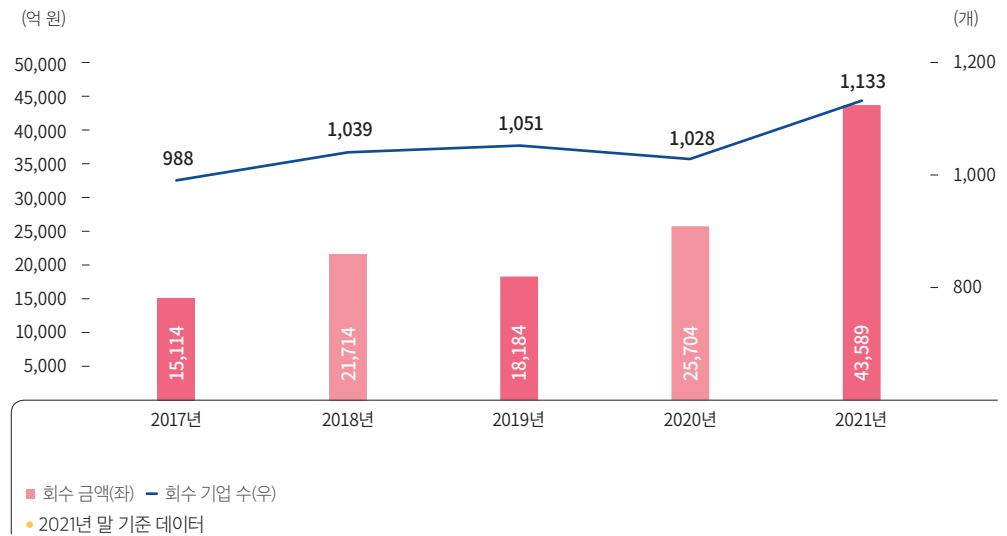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 모태 출자펀드 회수

## ♣ 모태 출자펀드 회수 동향

2021년에는 391개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1,133개 기업을 통해 총 4조 3,589억 원(회수원금 1조 2,105억 원, 회수수익 3조 1,484억 원)을 회수하며, 투자원금 대비 3.6배의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했다.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주로 하반기에 회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에는 약 1조 1,929억 원의 투자자금이 회수되며, 전년 대비 회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69.6%, 기업 수 기준으로는 10.2% 증가했다.

그림 7 최근 5년간 누적 회수 추이



## ♣ 회수금액 및 업종별 회수 동향

2021년 4분기에 모태 출자펀드의 각 투자기업 회수 건 중 최대 회수총액을 기록한 건은 2,391억 원을 회수하였고, 투자원금 대비 최대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한 건은 251배이다.

업종별로는 ICT서비스(1조, 5,067억 원, 34.6%)와 바이오/의료(1조, 885억 원, 25.0%) 순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CT서비스 내에서는 소프트웨어(1조 2,906억 원, 29.6%)의 비중이 대부분이었으며, 바이오/의료에서는 의료용 물질/의약품(6,093억 원, 14.0%), 의료기기(4,664억 원, 10.7%) 순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 ♣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IPO 현황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2021년 4분기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13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이 중 래몽래인, 툐젠, 바이옴트로스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였다. 2021년 말 기준 신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수는 29개사이다.

표 4 2021년 4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신규 상장 현황

(단위 : 억 원)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상장 연월	공모금액(모집총액)	상장일 시가총액	주요 제품/서비스
래몽래인	코스닥	2007.03	2021.12	180	1,500	드라마 제작
툐젠	코스닥	1999.10	2021.12	700	7,154	유전자 교정 플랫폼 관련 제품
마인즈랩	코스닥	2014.01	2021.11	181	1,924	종합 인공지능 엔진 및 플랫폼
알비더블유	코스닥	2010.03	2021.11	268	3,089	음반 및 음원 등(콘텐츠)
바이옴트로	코스닥	2000.07	2021.11	75	512	인쇄회로기판(PCB) 전기검사기
트윈	코스닥	2010.01	2021.11	268	2,982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검사 소프트웨어 및 설비
비트나인	코스닥	2013.10	2021.11	228	1,180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분석서비스
디어유	코스닥	2017.07	2021.11	858	13,40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DearU bubble, Lysn)
지니너스	코스닥	2018.04	2021.11	400	1,456	NGS 기반 조직생검 암유전체 동반진단(CancerSCAN), 액체생검 암유전체 동반진단(LiquidSCAN), 단일세포분석(Celinus) 등
엔캠	코스닥	2012.01	2021.11	950	12,086	2차전지 전해액
지앤비에스엔지니어링	코스닥	2005.04	2021.10	248	1,376	스크러버, 트랩, 백연 제거 장치 등
차백신연구소	코스닥	2000.06	2021.10	435	3,436	백신 및 면역증강제 등
아스플로	코스닥	2001.11	2021.10	158	1,260	강관, 피팅, 밸브류 등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 합병 제외, 코넥스 → 코스닥 이전 상장 포함

표 5 2021년 4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상장 추진 현황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년월	진행상태	주요 제품/서비스
애드바이오텍	코스닥	2000-06-16	상장예정	보조사료 및 의약품 개발/제조
오토앤	코스닥	2012-01-31	상장예정	자동차 용품 제조/유통
케이옥션	코스닥	2005-09-15	상장예정	미술품 경매
공구우먼	코스닥	2006-11-02	심사 승인	여성용 의류 온라인 판매
노을	코스닥	2015-12-04	심사 승인	차세대 체외진단키트(말라리아 등) 개발
모아데이터	코스닥	2014-03-28	심사 승인	AI 기반 시스템 장애예측 솔루션
바이오에프디엔씨	코스닥	2005-11-11	심사 승인	미생물 및 식물세포를 이용하여 성장인자 및 펩타이드 생산
비씨엔씨	코스닥	2003-06-23	심사 승인	반도체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
스코넥	코스닥	2002-04-16	심사 승인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아셈스	코스닥	2003-06-13	심사 승인	핫멜트접착필름, 합포기계
이지트로닉스	코스닥	2008-11-28	심사 승인	전력변환장치
인카금융서비스	코스닥	2007-10-25	심사 승인	보험GA
퓨런티어	코스닥	2009-04-24	심사 승인	검사자동화설비 제조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코스닥	2014-08-01	심사 중	바이오 고분자 소재 기반 의료 기기
넥스트칩	코스닥	2019-01-02	심사 중	반도체 제조, 도소매
디앤디파마텍	코스닥	2014-11-28	심사 중	신약 개발
루닛	코스닥	2013-08-23	심사 중	진단솔루션
범한퓨얼셀	코스닥	2019-12-26	심사 중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 수소충전소 구축
비플라이소프트	코스닥	1998-08-25	심사 중	뉴스 콘텐츠 유통
선바이오	코스닥	1997-06-10	심사 중	PEG유도체 기반 항암활성제 및 뇌졸중 치료제
성일하이텍	코스닥	2017-03-24	심사 중	2차전지 소재 재활용 사업
애니메디솔루션	코스닥	2016-12-14	심사 중	수술 시뮬레이터 및 가이드, 맞춤형 의료기기/소재 제조
에이엘티	코스닥	2003-07-23	심사 중	시스템 반도체 성능검사
에이프릴바이오	코스닥	2013-01-30	심사 중	면역 관련 질환 치료제
영창케미칼	코스닥	2001-07-28	심사 중	반도체 케미칼(PR, Rinse 등)
이문메드	코스닥	2000-05-10	심사 중	항체 신약 개발
청담글로벌	코스닥	2017-12-01	심사 중	화장품 도매업
트레저헌터	코스닥	2015-01-05	심사 중	MCN 플랫폼, 마케팅, 커머스
포바이포	코스닥	2017-08-30	심사 중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 합병 제외, 코넥스 → 코스닥 이전 상장 포함    •• 2021년 말 기준

#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 해외 VC

---

## 시장 동향 /

해외 VC 시장 관련  
해외 발간 보고서 내용을  
분기별로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PitchBook,  
CB Insights에서  
발간한 **2021년 4분기**  
보고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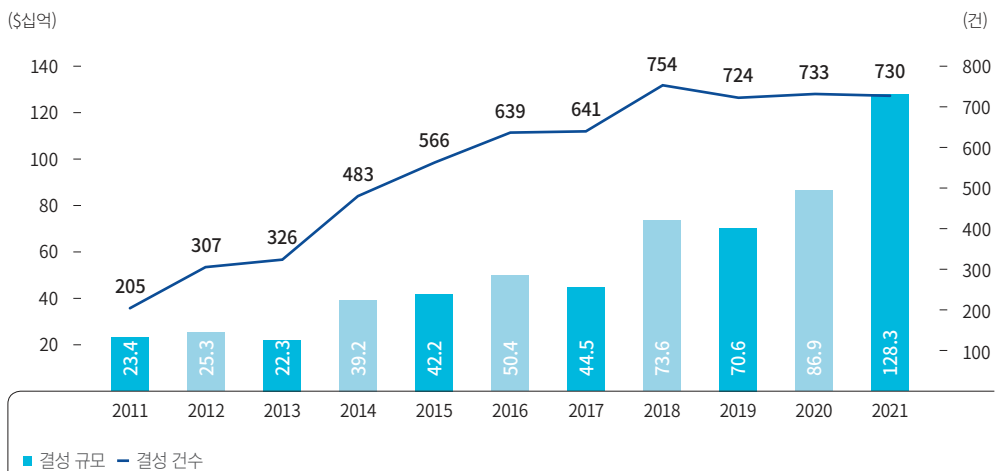
(Venture Monitor, 2021년 4분기)

• Venture Monitor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이하 NVCA)과 PitchBook이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 결성(Fundrai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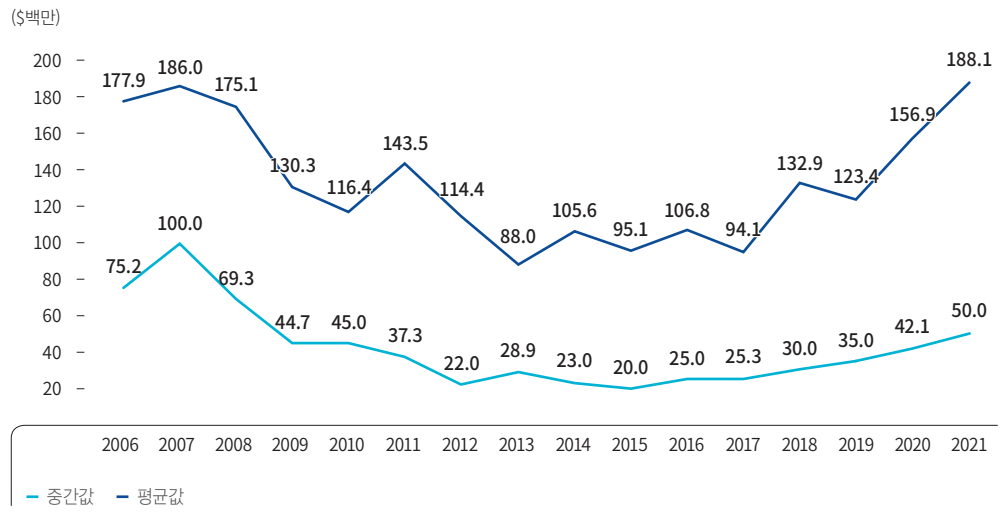
2021년 한 해 동안 730개의 펀드에서 총 1,283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연간 결성총액 1,000억 달러의 시대를 열었다. 펀드 결성이 호황을 누린 것은 그간 VC가 유사한 자산군 대비 좋은 성과를 보인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PitchBook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VC의 1년 및 3년 IRR이 기타 PE 자산군(사모투자, 세컨더리, 사모부채, 모펀드)의 성과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미국 VC 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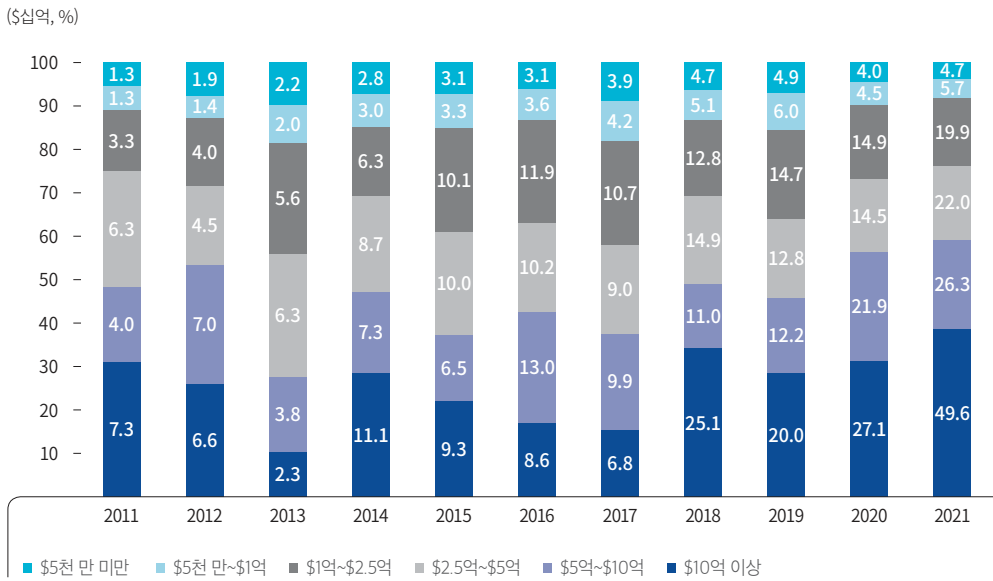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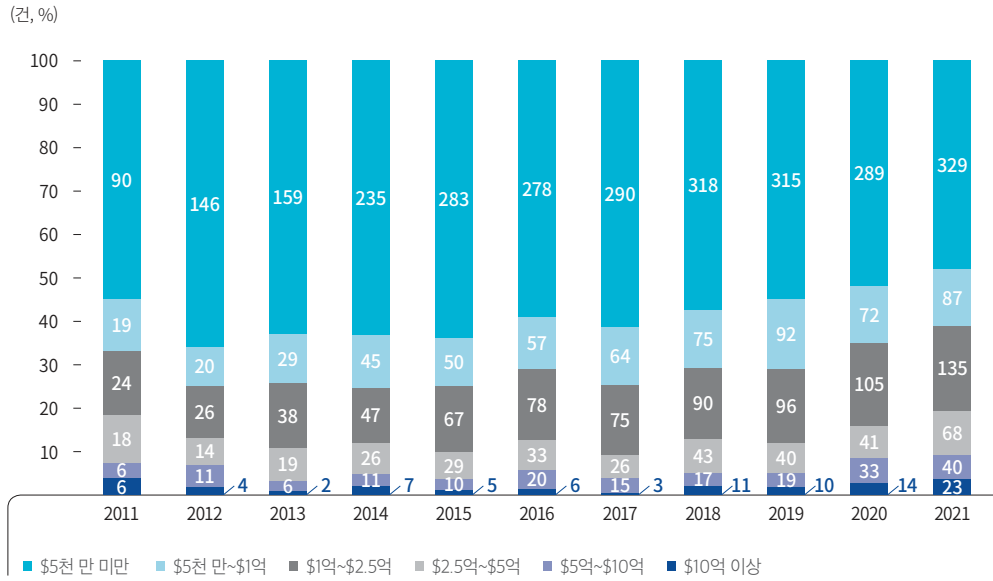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2 미국 VC 펀드 결성 규모 중간값과 평균값



펀드당 결성 규모의 중간값 및 평균값은 각각 5천만 달러 및 1억 8천81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의 4천210만 달러 및 1억 5천690만 달러에 비해 상승하였다. 결성 규모별 현황을 보면, 올 한해 역시 펀드의 대형화 추세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결성총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형 펀드가 2021년 한 해 동안 23개가 결성되어 총 496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결성총액인 1,238억 달러의 약 38.6%에 달하는 수치이다. 5억 달러 이상의 결성총액을 가진 펀드까지 포함하면 전체 펀드 결성 건수의 8%도 채 되지 않는 63개의 펀드에서 전체 결성 규모의 약 59.1%에 달하는 753억 달러가 조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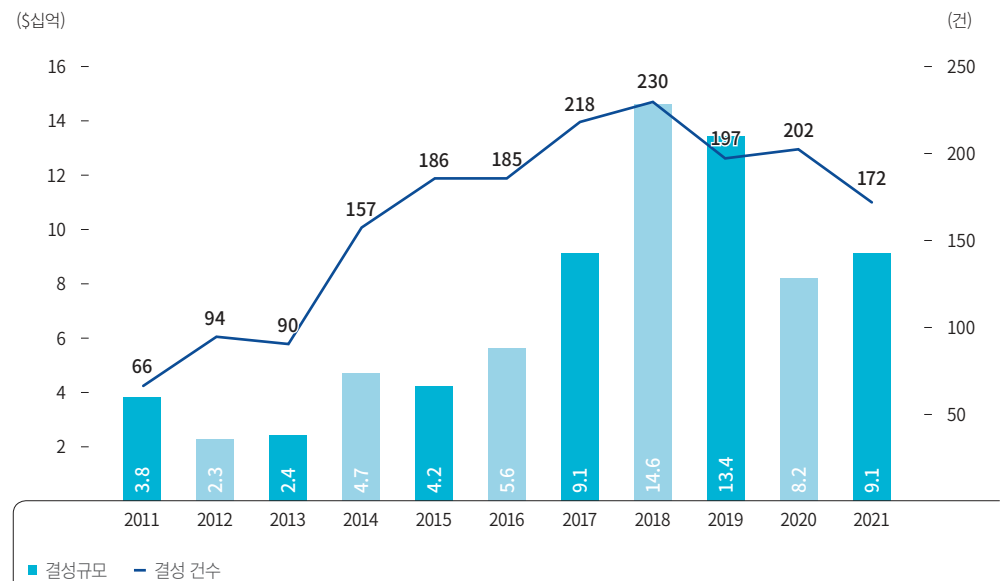
그림 3 미국 VC 펀드 결성 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한편, 전년도에 크게 하락했던 최초 펀드 결성(First-time fundraising) 규모가 2021년에는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최초 펀드 결성에 성공한 펀드 수는 총 172개이며 이들의 결성 규모는 91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펀드 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하락(202→172)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성 규모는 상승(82억 달러→91억 달러)하였다. 여기에는 Walden Catalyst Ventures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주목적 분야로 하는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 UP Partners의 운송 및 물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 등의 역할이 컸다. 신형 운용사(4개 미만의 펀드 결성 경험 보유)들 역시 2021년에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이 결성에 성공한 펀드의 규모는 전체 결성 규모의 32.2%를 기록하였다. 사실 2021년이 시작되기 이전 미국 VC 시장에 대한 전망에 있어, 팬데믹 여파로 인해 높은 수준의 평판을 가진 기존 운용사(4개 이상의 펀드 결성 경험 보유)들이 펀드 결성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신형 운용사들이 팬데믹에 잘 적응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림 4 미국 VC 최초 펀드 결성(First-time fundraising) 활동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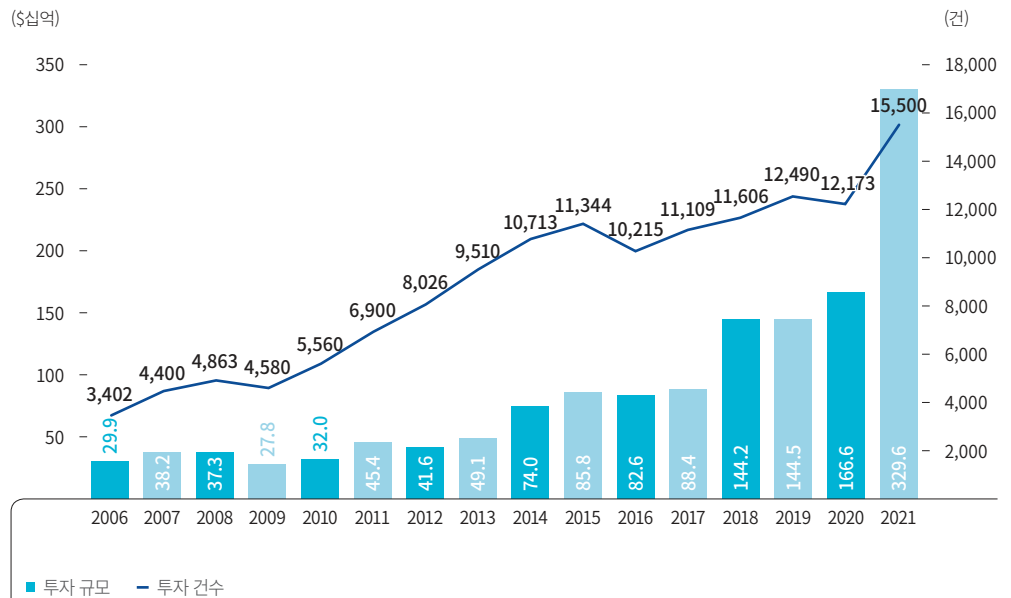
2021년 4사분기에 발생한 주요 뉴스 중 하나는 VC 산업의 거물인 Sequoia Capital이 회사를 단일 펀드로 재편하였고, 대다수의 VC가 선택한 '면제 보고자문(ERA; Exempt Reporting Adviser)'에서 '등록 투자자문(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 ERA가 되고자 하는 VC 회사는 반드시 'VC 펀드 전략'을 사용해야 하기에, RIA로 전환하는 VC 회사는 이런 운용상의 제약을 벗어나 좀 더 유연한 펀드 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2022년에도 최소 3개 이상의 VC가 Sequoia Capital을 따라서 RIA로 전환할 것이 예측되는데, 이는 최근 팬데믹 동안 VC 투자 기업의 IPO 붐, 암호화폐, 블록체인 지원 기술 등의 등장으로 인해 일부 출자자들을 대상으로 ERA 체제하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투자 전략을 제공하면서 더 많은 출자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미국에서 대형 투자자문업자(AUM 1억5천만 달러 이상)인 VC 회사가 SEC에 대한 보고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의 Sec. 203(i)에 의해 정의되는 VC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다. VC 펀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데,
  - ① 펀드의 투자가 벤처 캐피탈 전략을 추종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하고,
  - ② 비-인정투자(non-qualifying investmnet) 또는 단기보유자산이 펀드 총자산의 20% 미만이어야 하고,
    - 적격-투자(qualifying investments)는 적격-포트폴리오 기업에서 직접 발생한 지분 증권으로 한정
    - 적격-포트폴리오 기업은 투자 당시 (i) 신고 의무를 가진 회사가 아니며,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외환법상의 신고 대상 회상의 계열회사가 아닌 (ii)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부채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차입을 하지 않음 (iii)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 VC펀드, 상품 펀드 또는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자가 아닌
  - ③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환매권리가 투자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 ④ 펀드 총자산의 15% 이상의 자금을 대어 또는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등의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이런 자금의 대어 등의 120일 이내의 기한(연장 불가)으로만 가능
  - ⑤ 또한 1940년 투자회사법상 등록되지 않은 회사여야 하며 동법의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 ♣ 투자(Deal)

2021년 한 해 동안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거의 두 배 상승한 3,296억 달러가 15,500건의 거래에 걸쳐 투자되었다. 2021년 신규 투자가 크게 상승한 것은 VC 생태계 내 투입된 기록적인 수준의 자본의 양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VC의 드라이파우더(미투자자산)가 지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VC 투자에 참여 또는 주도하기 위한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생태계 내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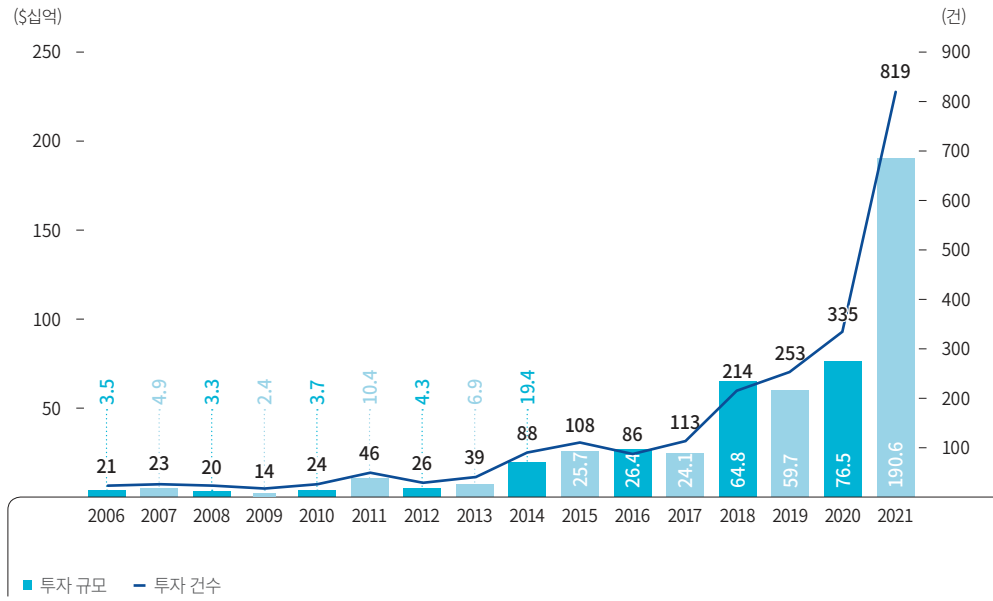
그림 5 미국 VC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1년의 투자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의 하나는 메가딜(Mega-Deal,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규모를 가진 라운드)이 후기 단계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2021년 전체 메가딜의 수는 819건으로서 작년의 335건에 비해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으며, 메가딜의 투자 규모 역시 1,906억 달러로서 작년의 765억 달러에 비해 두 배를 훌쩍 넘긴 성장세를 보였다. 단계별로 보면, 819건의 메가딜 중 658건이 후기 단계에서 발생하였으나, 초기 단계 역시 156건의 메가딜이 발생하였고, 엔젤시드 단계에서도 5건의 메가딜이 탄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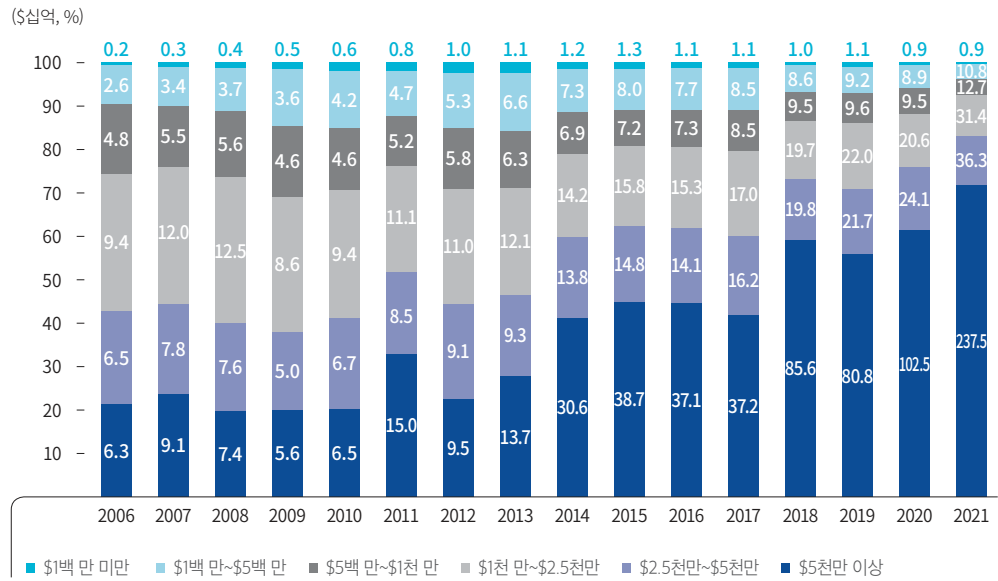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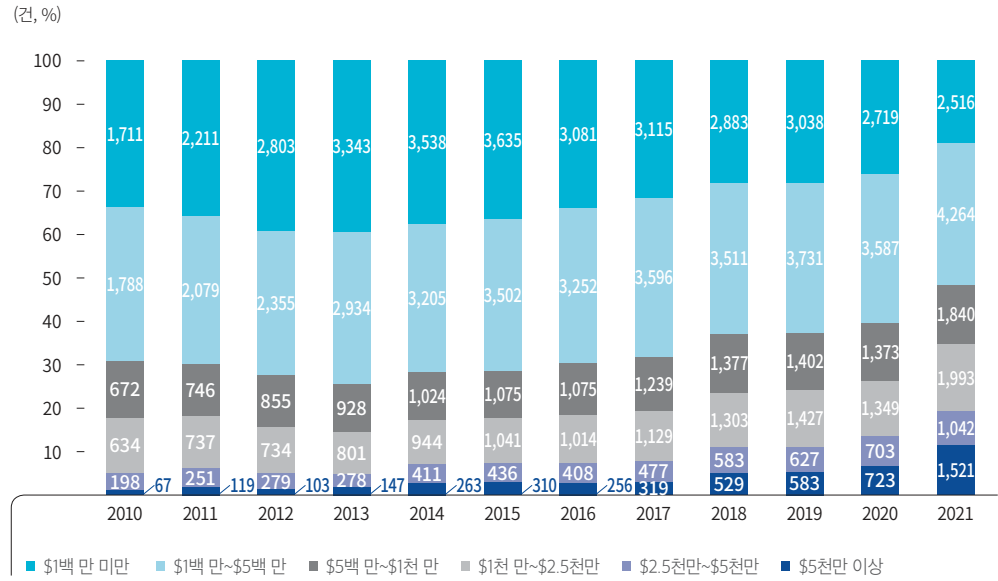
그림 6 미국 VC 메가딜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메가딜의 증가로 인해 2021년 미국 내 VC 시장에서 투자의 대형화 경향이 한층 더 두드러졌는데,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전년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한 1,521건으로 기록하면서 전체 투자 규모의 약 72.1%인 2,375억 달러의 투자 규모를 기록하였다. 반면, 백만 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는 투자 건수가 작년의 2,719건에 비해 오히려 소폭 감소한 2,516건을 기록하며 거래 규모 측면에서 양극단의 투자 양극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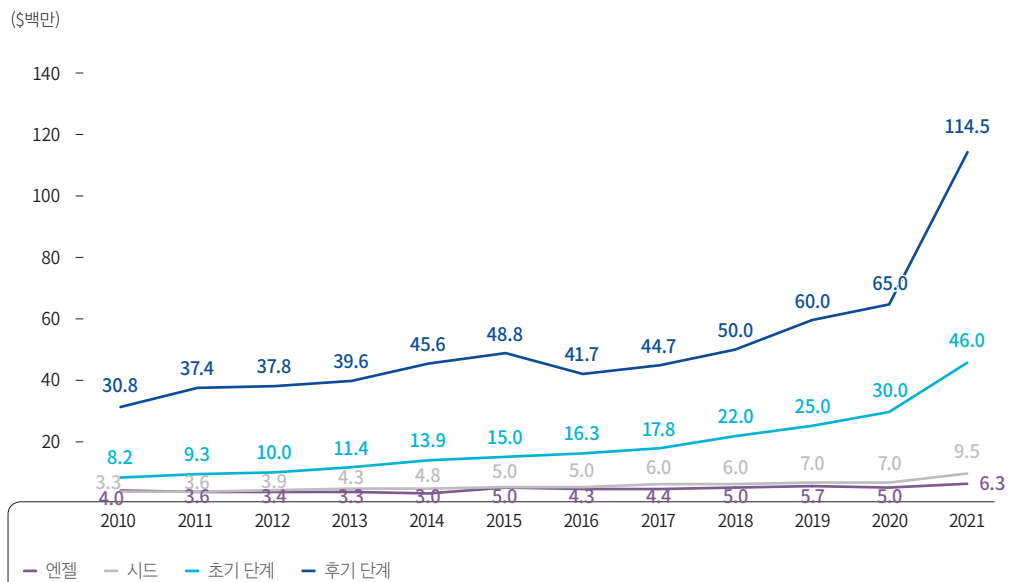
그림 7 미국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이처럼 전체 투자 규모의 폭발적인 증가 및 메가딜로 대표되는 투자의 대형화는 스타트업의 기업가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1년 투자이전(pre-money 기준) 기업가치의 단계별 중간값은 모든 단계에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대형 투자가 집중된 후기 단계의 기업가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후기 단계의 기업가치 중간값은 작년의 6천500만 달러에서 거의 두 배가량 상승한 1억 1천45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초기 단계 역시 3천만 달러에서 4천600만 달러, 엔젤/시드 단계 역시 각각 500만 달러에서 630만, 700만 달러에서 950만 달러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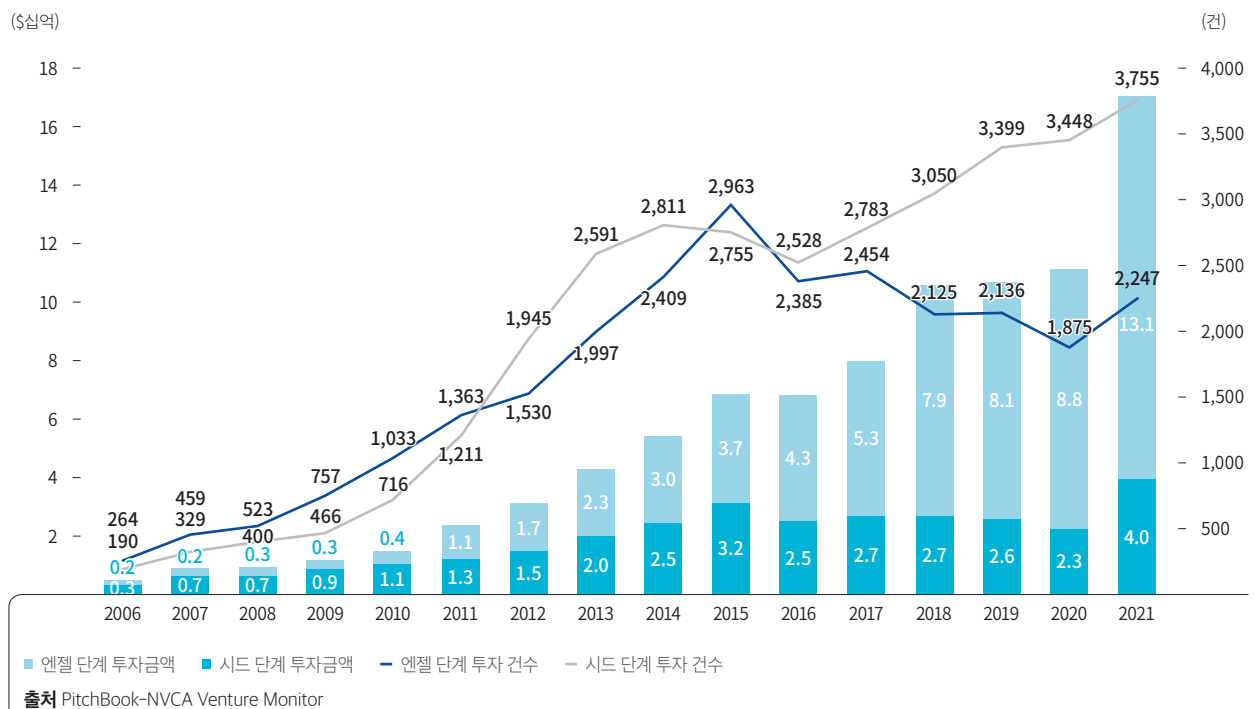
그림 8 미국 VC 단계별 기업가치 중간값



## ♣ 엔젤/시드 투자(Angel/Seed) 및 최초 투자유치(First-time financ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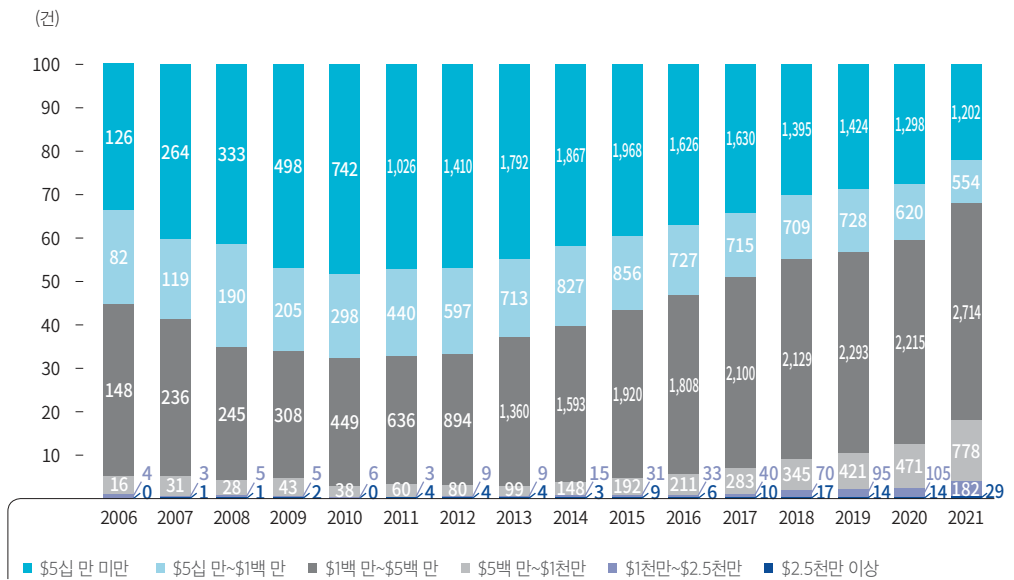
2021년 엔젤/시드 단계에 있어 각각 2,247건 및 3,755건의 총 40억 및 131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특히 시드 단계에 대한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2021년에 기록한 시드 단계에 대한 투자 규모인 131억 달러는 2011년 한 해 동안 초기 단계에 투자된 138억 달러에 근접한 수치로서, “시드가 새로운 시리즈 A”라는 업계의 새로운 풍토를 보여주고 있다. 2021년 엔젤/시드 단계를 합쳐서 모두 6,002건의 투자가 발생하면서 최초로 6,000건의 벽을 허물었다.

그림 9 미국 엔젤/시드 단계 투자 현황



2021년 엔젤/시드 단계는 단순히 양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였다. Andreessen Horowitz는 4억 달러 규모의 시드 펀드를 결성하였고, Greylock은 시드 거래를 위해 5억 달러를 배정하였는데, 이런 대형 펀드의 결성과 함께 거의 700명의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시드 단계의 거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VC 시장을 휩쓸고 있는 대형화 물결은 엔젤/시드 단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엔젤/시드 단계의 투자를 규모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50만 달러 미만/50~100만 달러 미만의 극소형 딜이 엔젤/시드 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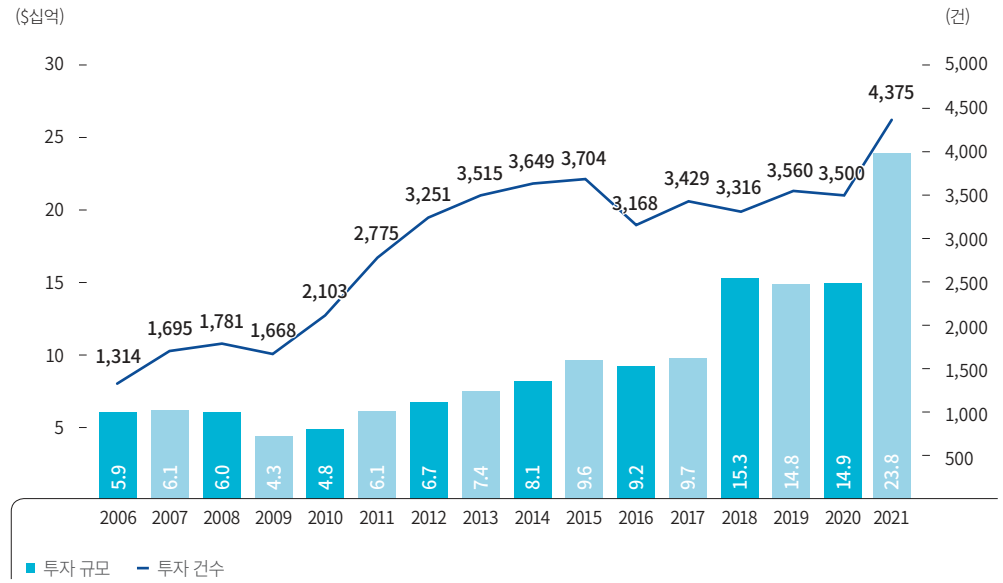
그림 10 미국 엔젤/시드 단계 투자 규모별 투자 현황(건수 기준)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엔젤/시드 단계의 성장에 힘입어 최초 투자유치 숫자 역시 자료 집계 이후 최초로 4,000건을 돌파한 4,375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최초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이 238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림 11 미국 VC 최초 투자 유치(First-time financing)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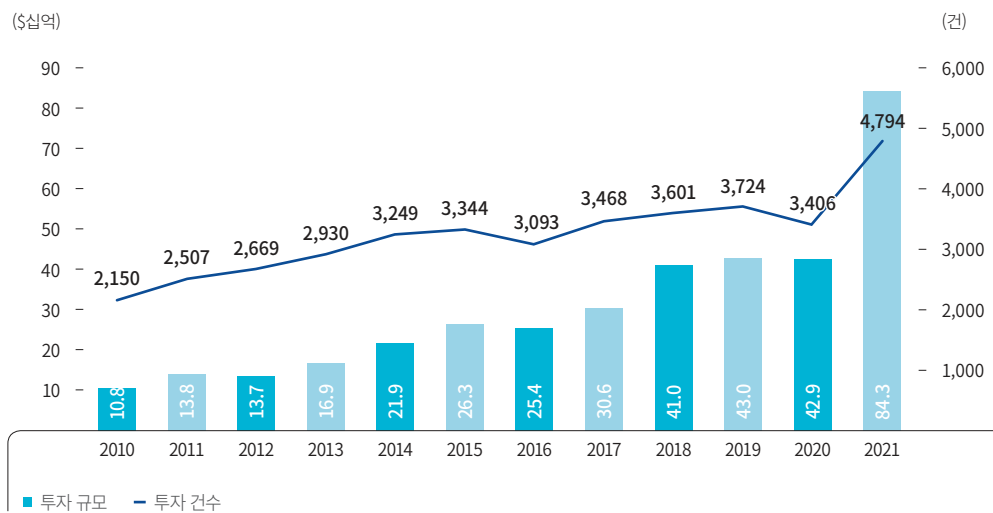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이처럼 엔젤/시드 단계, 더 나아가 최초 투자 유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자본 투입은 미국 내 높은 수준의 기업가정신을 만족시키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0년 440만 개의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또한 지난 10년(2010~2019년)간의 평균 기록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기록이다. 이렇게 높은 미국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열망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에 따라 엔젤/시드 단계의 투자 및 최초 투자 유치는 가까운 미래에도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초기 VC 투자(Early-Stage VC)

2021년 초기 VC 투자는 기록적인 한 해를 마감하였는데,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초과한 843억 달러가 4,794건의 딜에 투자되었다. 이는 지난 3년간 초기 VC 투자가 400억 달러대에 머문 것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지난 몇 년간 초기 VC 투자가 정체기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확실히 잠재웠다.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투자 건수 역시 크게 상승하였는데, 지난 수년간 초기 VC 투자 건수가 3,000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추정된 투자 건수까지 합치면 최초로 5,000건 이상을 기록할 여지가 존재한다.

그림 12 미국 VC 초기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팬데믹 이후 VC 생태계가 전례 없는 창업 친화적인 시기를 거침에 따라 투자 라운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고, 이는 초기 VC 투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투자 규모가 2천500만 달러 이상인 딜이 2021년 총 860건으로서 전년의 448건 대비 거의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 기준으로 2천500만 달러 이상인 딜이 전체 초기 VC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웃도는 62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초기 VC 투자를 선도하였다. 이런 대형화로 인해 2021년 초기 VC 투자에 있어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각각 1천만 달러 및 4천600만 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또한 2021년도 초기 VC 투자는 2017년도 전체 VC 투자보다 더 많은 수의 메가딜을 창출하였다. 특히 2021년 가장 큰 두 건의 초기 단계 딜은 4사분기에 발생했는데, 소형 핵융합 발전소 건설 분야의 Commonwealth Fusion Systems이 지난 2021년 12월 시리즈 B 라운드를 통해 18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우주 방위사업 분야의 Sierra Space는 2021년 11월 시리즈 A 라운드를 통해 14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그림 13 미국 초기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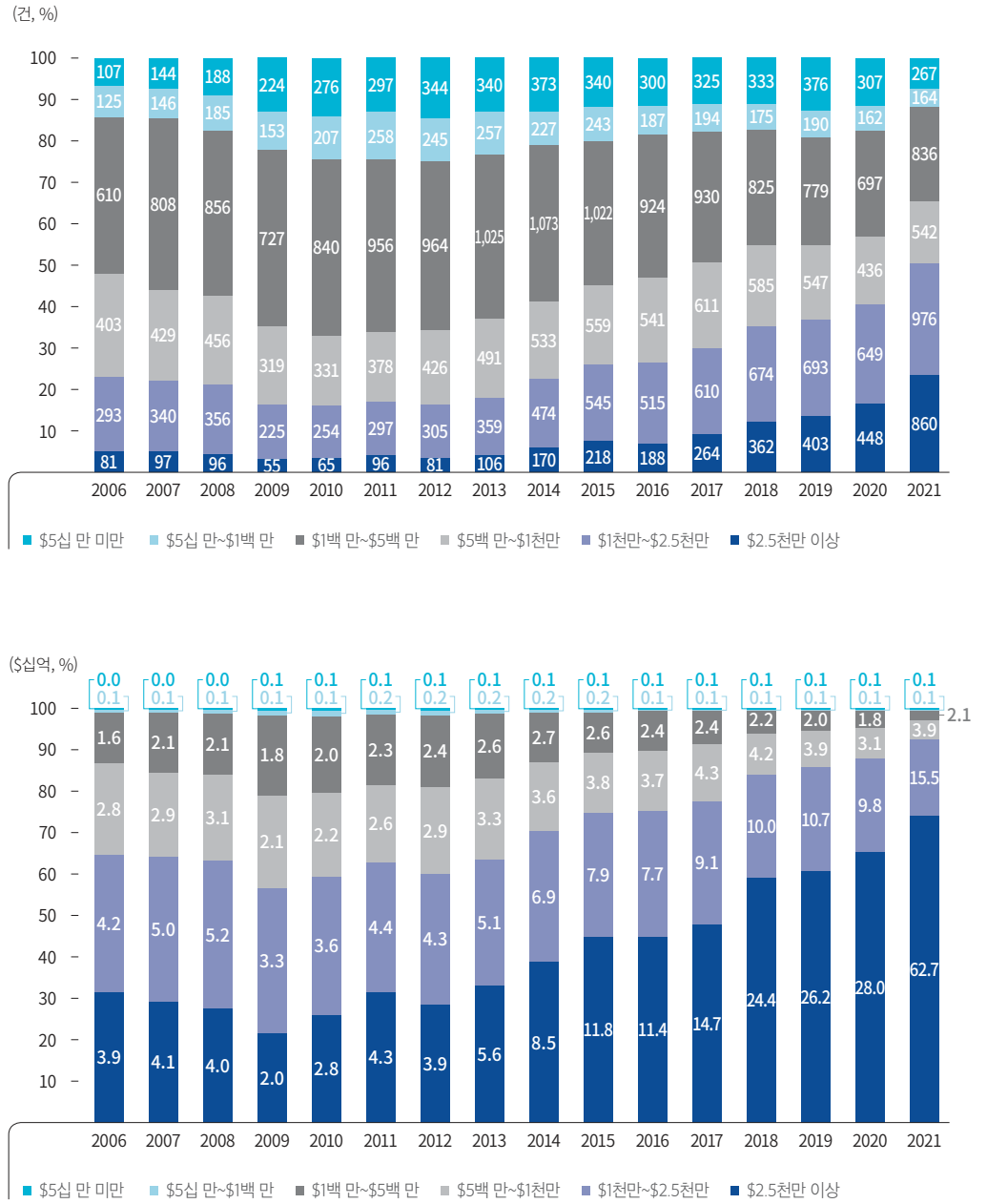


그림 14 미국 초기 VC 투자의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 증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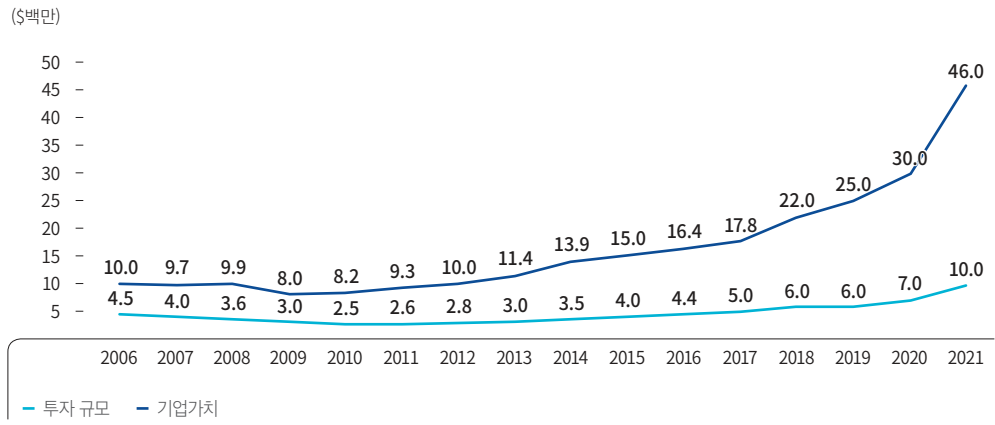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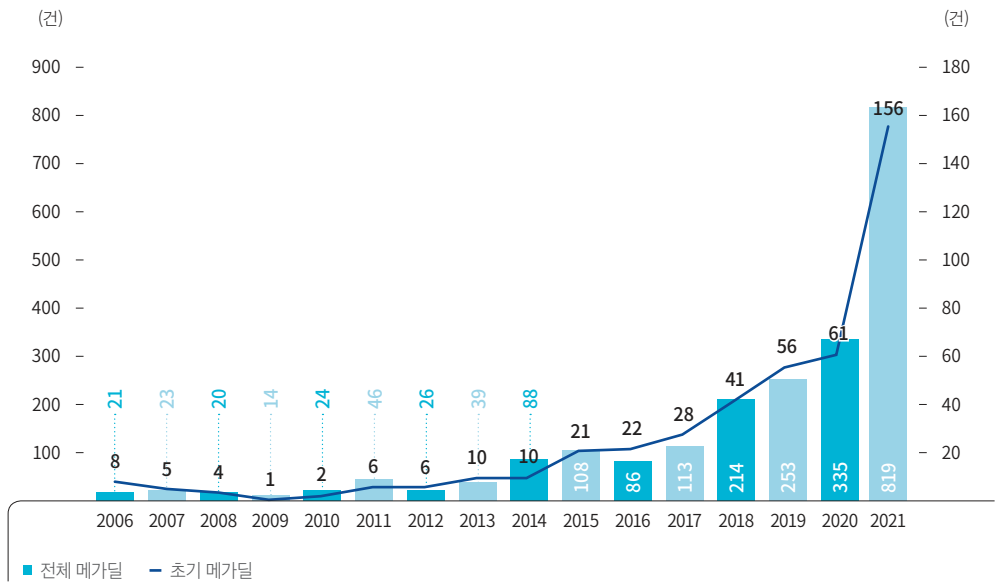


그림 15 미국 초기 VC 투자 메가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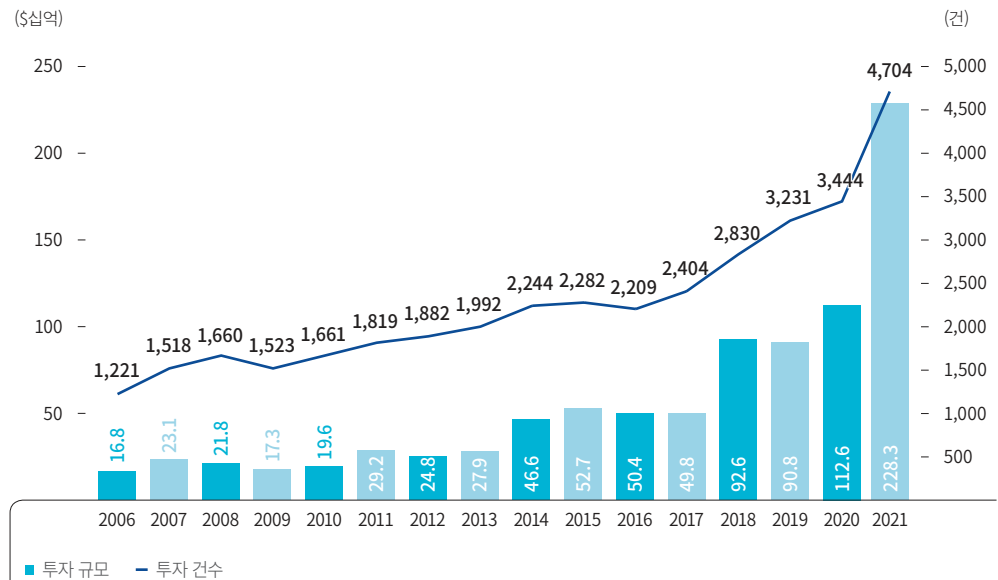


2021년에 나타난 초기 VC 투자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초기 단계의 딜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주도하기 VC 시장으로 진출하는 크로스오버(Cross-over) 투자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VC 시장이 올 한해와 같은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 ♣ 후기 VC 투자(Late-Stage VC)

2021년 후기 VC 투자는 규모 기준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200억 달러가 증가하였고, 건수 기준으로도 최초로 5천 건(추정된 딜 포함)을 돌파하며 전년도의 3,444건 대비 약 47%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후기 단계로 분류되는 스타트업 수의 확대 및 그에 따른 생태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16 미국 VC 후기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1년의 후기 VC 투자는 메가딜이 주도하는 모습이 더욱더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후기 VC 투자에서만 총 659건의 메가딜이 발생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41.4% 증가한 수치로서 최근 몇 년간 크로스오버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규모 VC 투자 라운드에 집중되는 현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메가딜과 같은 대형 투자가 후기 VC 투자를 지배하는 것은 이미 수년이 흘렀으나, 특히 올해는 금액 기준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의 딜이 전체 후기 VC 투자의 약 83%를 차지하였으며 건수 기준으로도 약 27%를 기록하는 전례 없는 한 해를 보냈다.

그림 17 미국 후기 VC 투자 메가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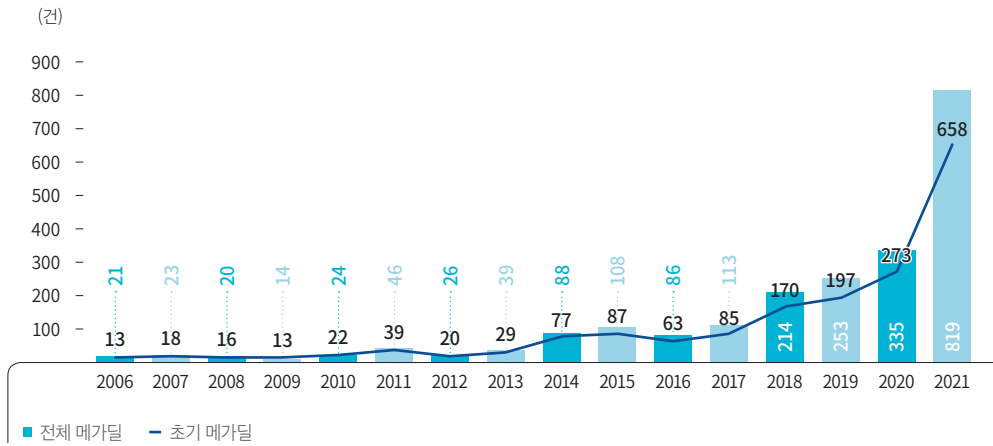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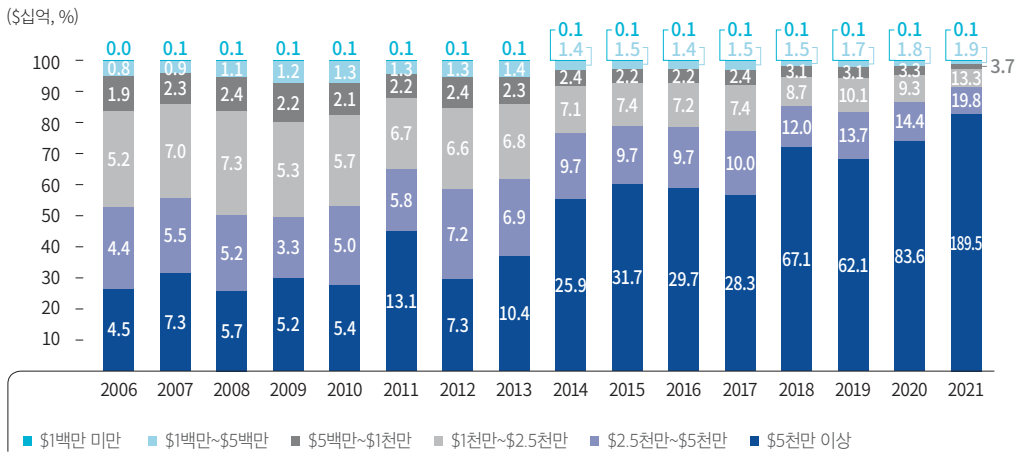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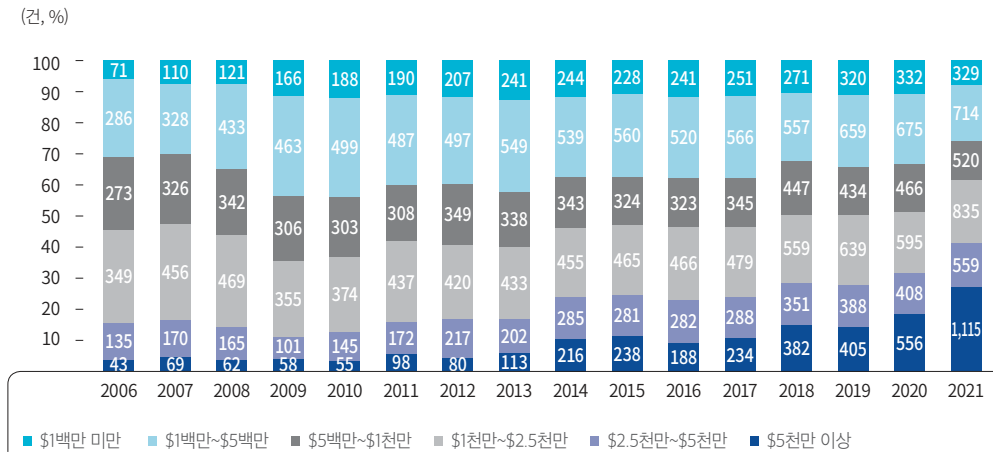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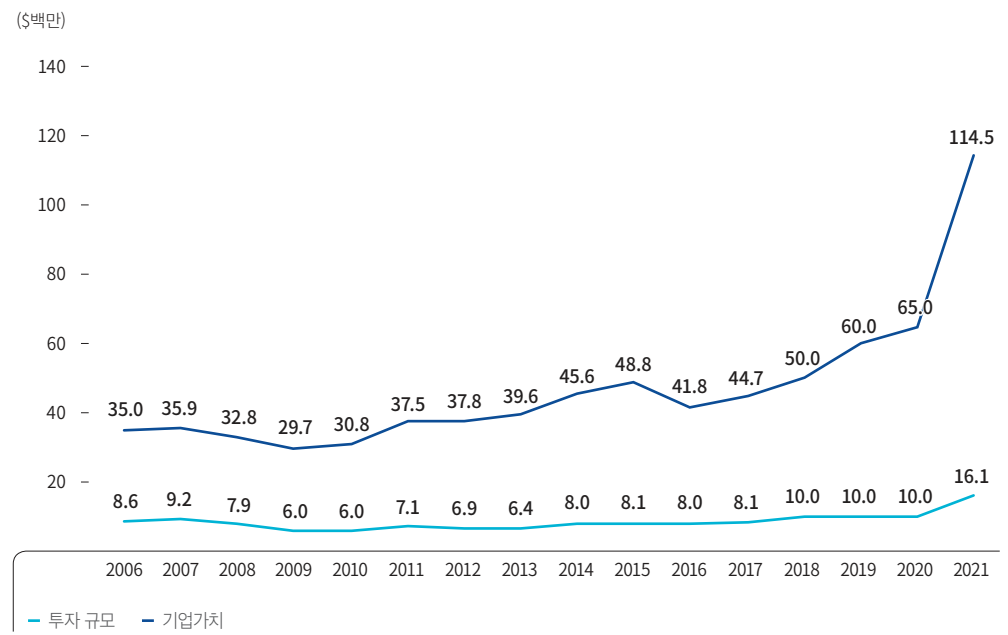


그림 18 미국 후기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후기 VC 투자의 폭발적인 대형화는 자연스럽게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각각 약 1억 1천450만 달러 및 1천611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61% 및 7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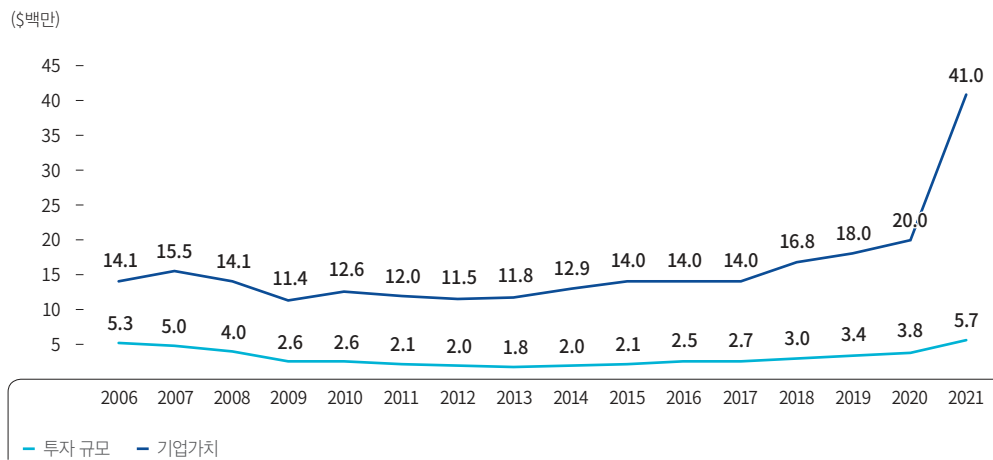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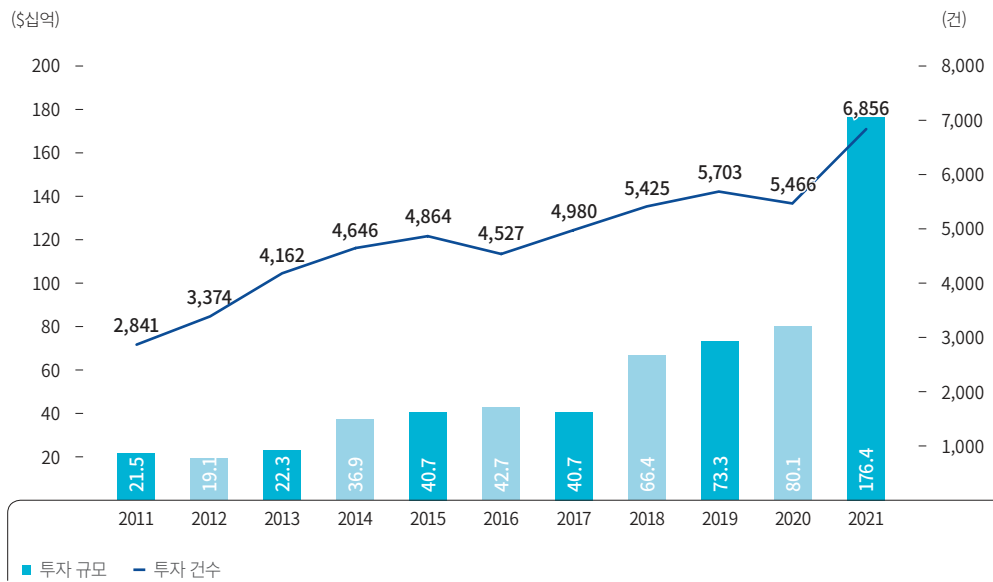
그림 19 미국 후기 VC 투자의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 중간값



## ♣ 분야별 투자 현황

2021년 한 해 동안 B2B 테크 분야에 6,856건의 1,765억 달러가 투자가 발생하였다.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각각 3천만 달러 및 4억 5천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약 51% 및 105%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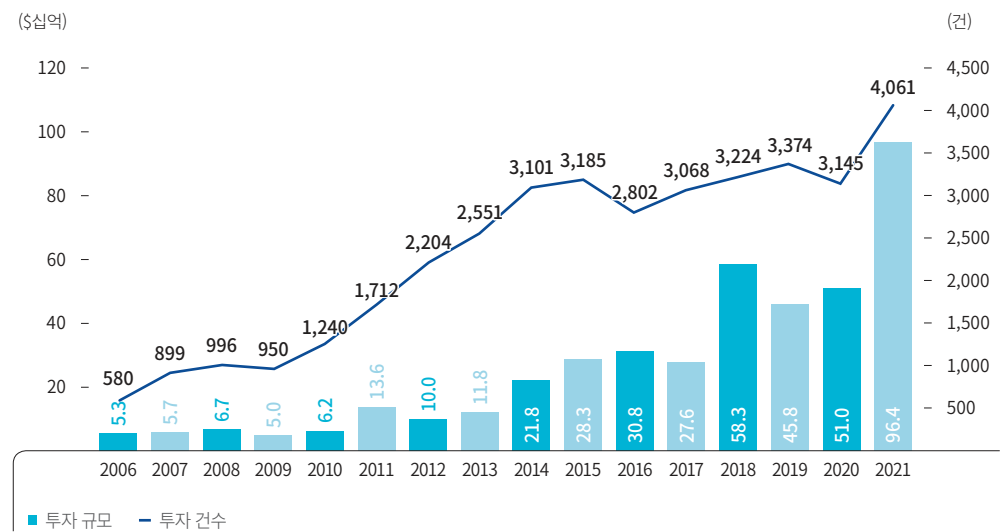
그림 20 미국 VC B2B 테크 투자 현황 : 연도별 투자 규모(상) /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 중간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1년 한 해 동안 B2C 테크 분야에 4,061건의 964억 달러가 투자가 발생하였다.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각각 3천500만 달러 및 3억 2천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약 34% 및 86%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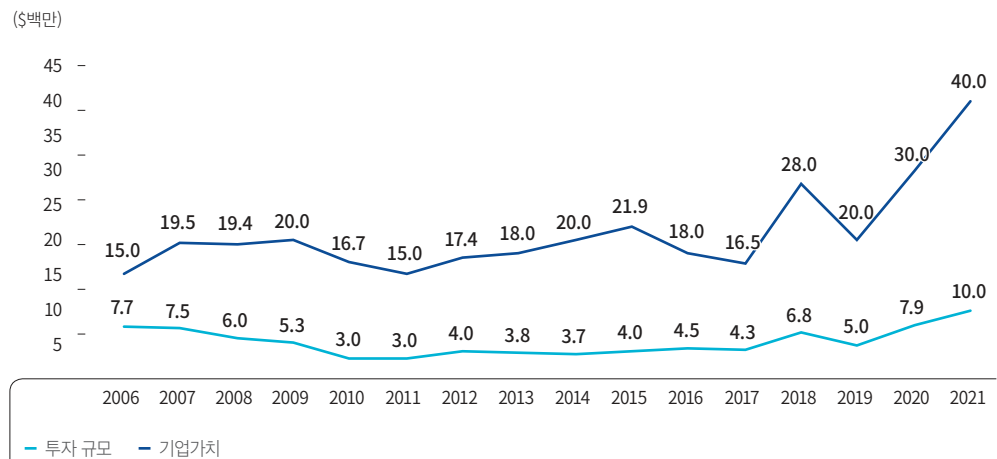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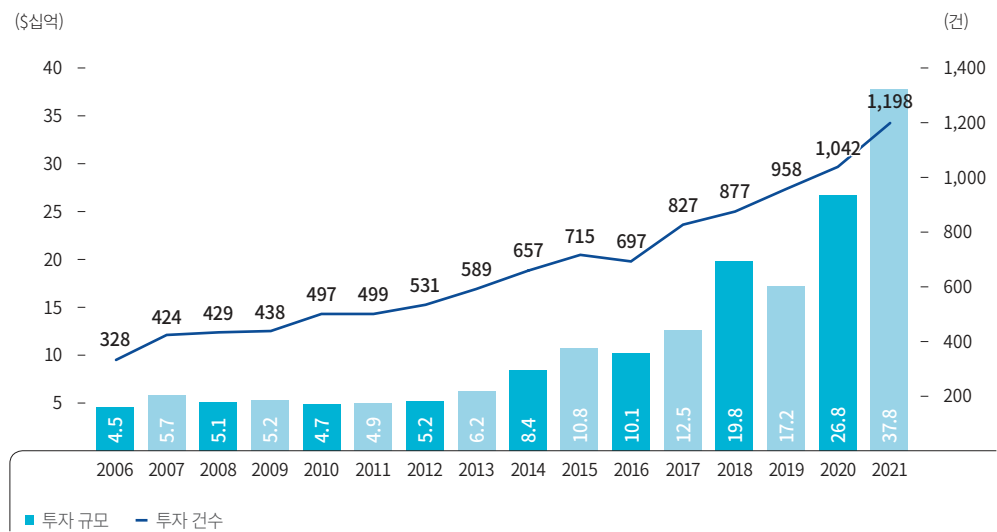
그림 21 미국 VC B2C 테크 투자 현황 : 연도별 투자 규모(상) /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 중간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1년 한 해 동안 제약/바이오 테크 분야에 1,198건의 378억 달러가 투자가 발생하였다.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각각 1천만 달러 및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약 27% 및 33%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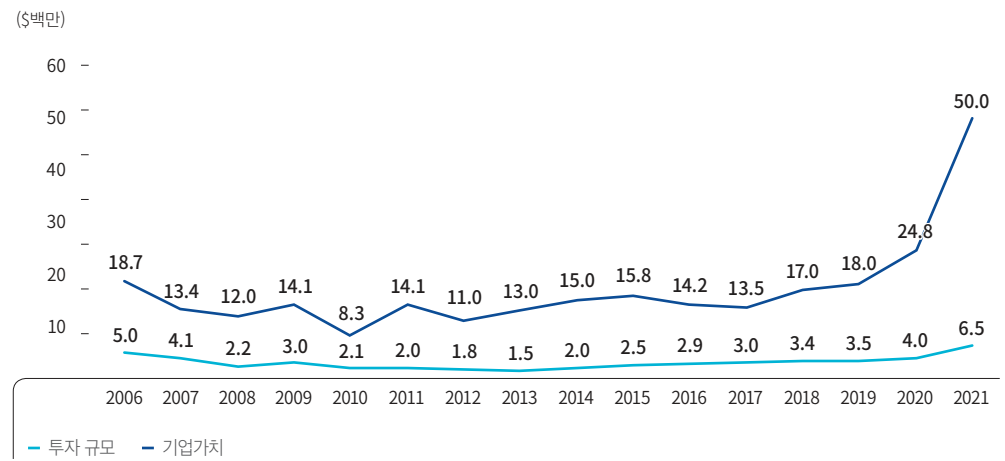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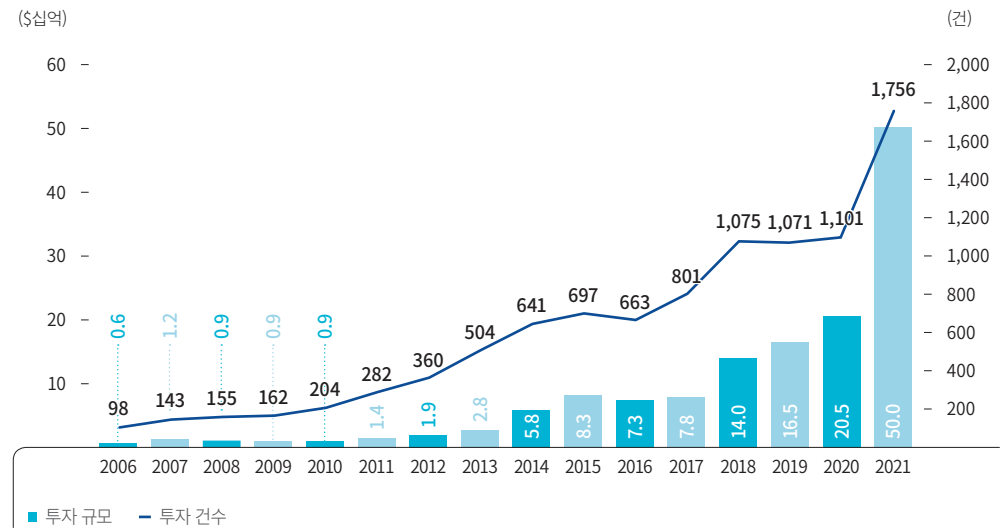
**그림 22** 미국 VC 제약/바이오 투자 현황 : 연도별 투자 규모(상) /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 중간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1년 한 해 동안 핀테크 테크 분야에 1,756건의 500억 달러가 투자가 발생하였다.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각각 650만 달러 및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약 62% 및 102% 상승하였다.

그림 23 미국 VC 핀테크 투자 현황 : 연도별 투자 규모(상) /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 중간값(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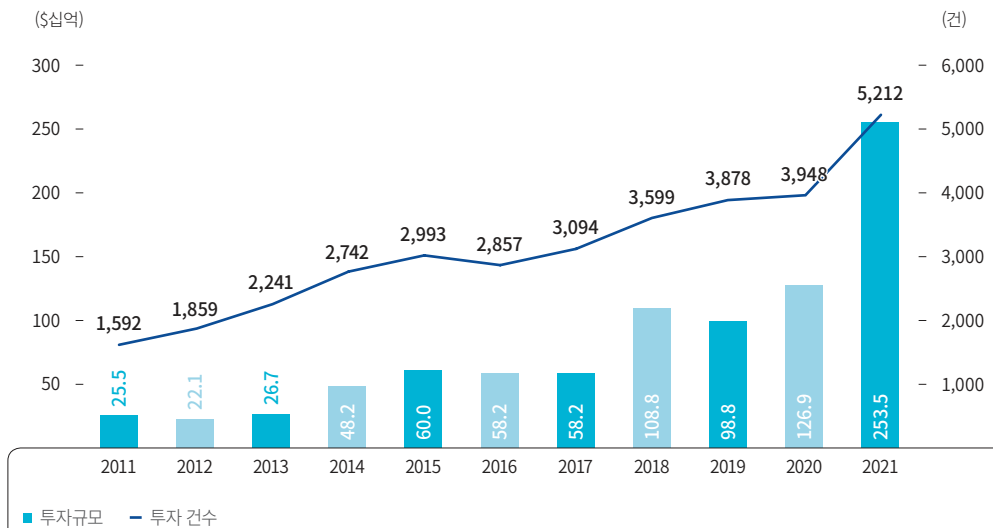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 VC 시장의 비전통적 투자자들(Nontraditional Investors)\*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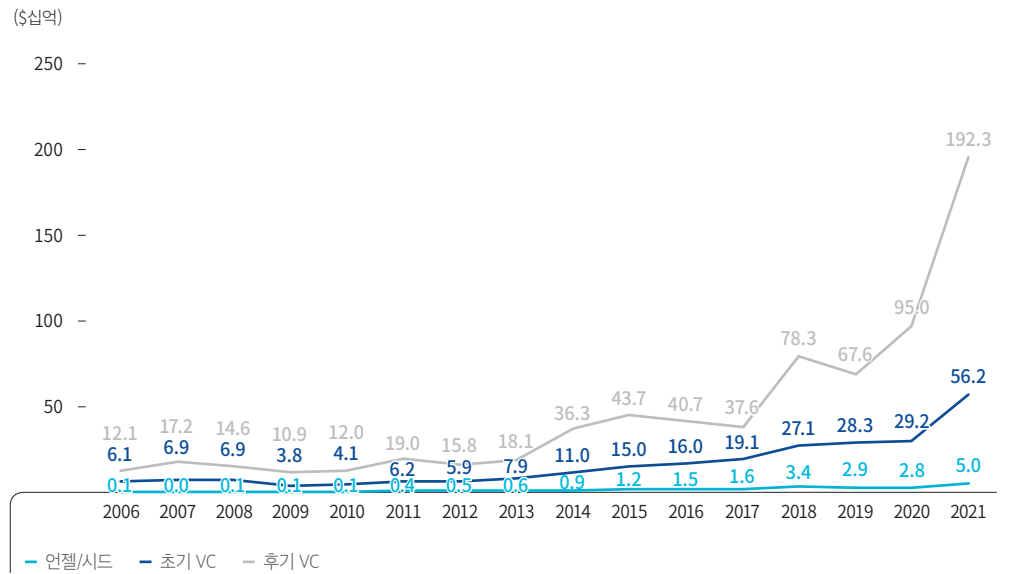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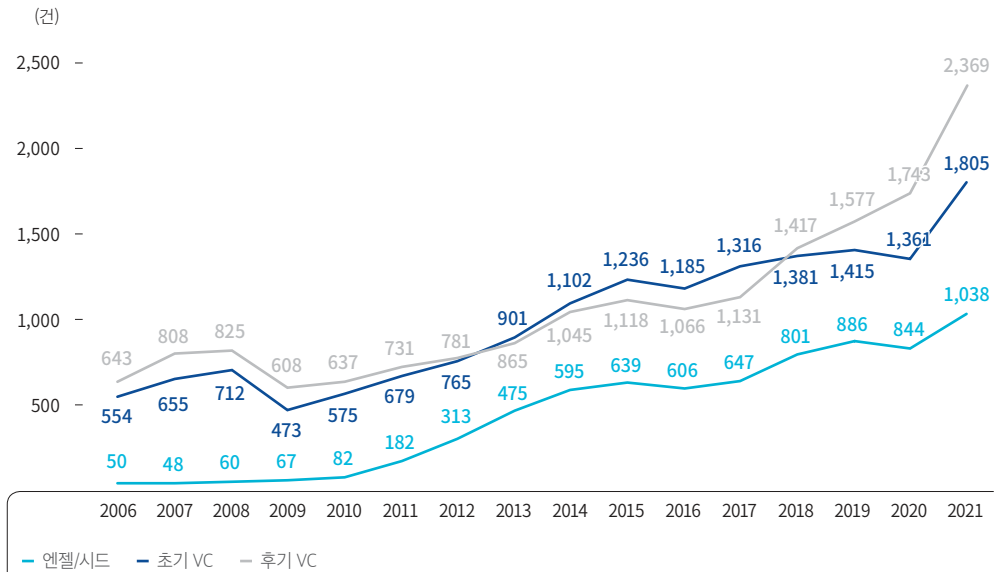
2021년의 폭발적인 VC 투자의 증가는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기여가 큰 보탬이 되었다.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투자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딜의 약 34%, 투자 규모 기준으로는 약 77%인 총 5,211건의 2,535억 달러의 딜에 참여하였다. 단계별로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딜을 분석해 보면, 특히 후기 단계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가 목격된다. 2021년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후기 VC 투자는 2,369건의 1,9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약 36%, 규모 기준으로는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메가딜에 있어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는데, 이들은 올 한해 700여 개의 메가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가속화된 이유로는 자산군으로서 VC 투자에 대해 지난 몇 년간의 수익률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들을 VC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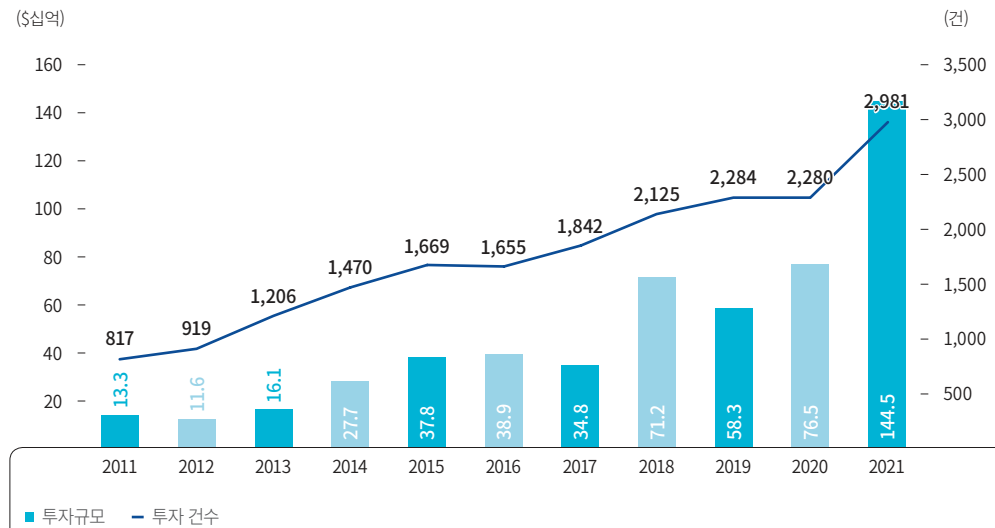
그림 25 미국 VC 투자 단계별 비전통적 투자자의 투자 현황: 건수(상) 금액(하) 기준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비전통적 투자자 중 가장 큰 규모인 CVC 투자자들은 2021년에도 시장의 고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이들이 참여한 딜은 2,981건의 1,445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약 31%, 규모 기준으로는 약 89% 성장하였다. CVC의 성장에는 CVC 투자자들의 확대된 다양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21년 한 해 Coinbase(가상화폐 거래소 분야), Twilio(클라우드 기반 커뮤니케이션 분야) 및 Blockchain.com과(암호화폐 개발 분야) 같은 기존 VC 투자를 받은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CVC 투자자로 전환되어 2021년 한 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CVC 투자자로 전환되었다. 또한, 기술 이외의 분야의 기업인 Scotts MiracleGro(원예 분야) 및 Ryder Systems(운송 및 물류 분야)가 각각 첫 VC 투자를 단행하였고 전용 CVC 펀드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그림 26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CVC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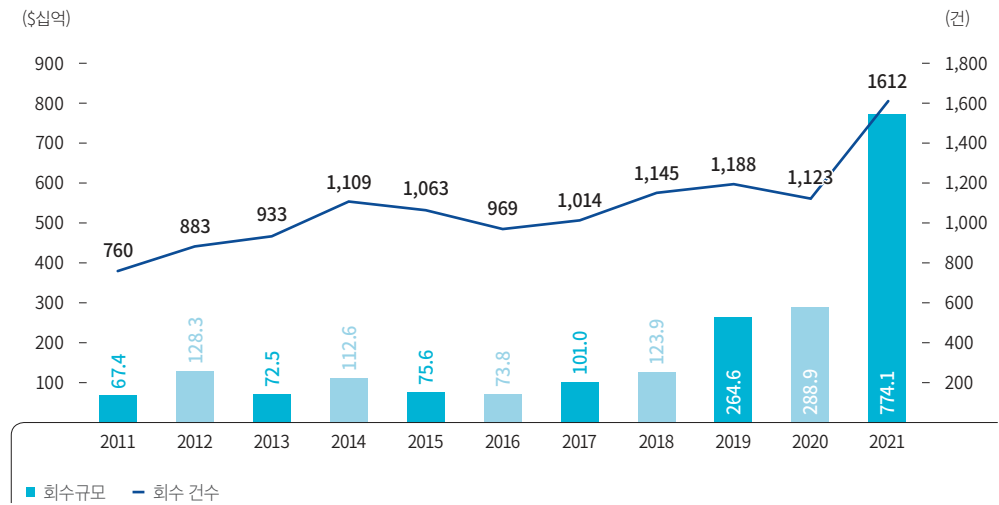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 회수(Exit)

- M&A 관련 회수 규모(M&A value)는 보고되거나 공개된 값에 근거한다. IPO 관련 회수 규모(IPO value)는 IPO price로 계산한 기업의 프리머니 기준 기업가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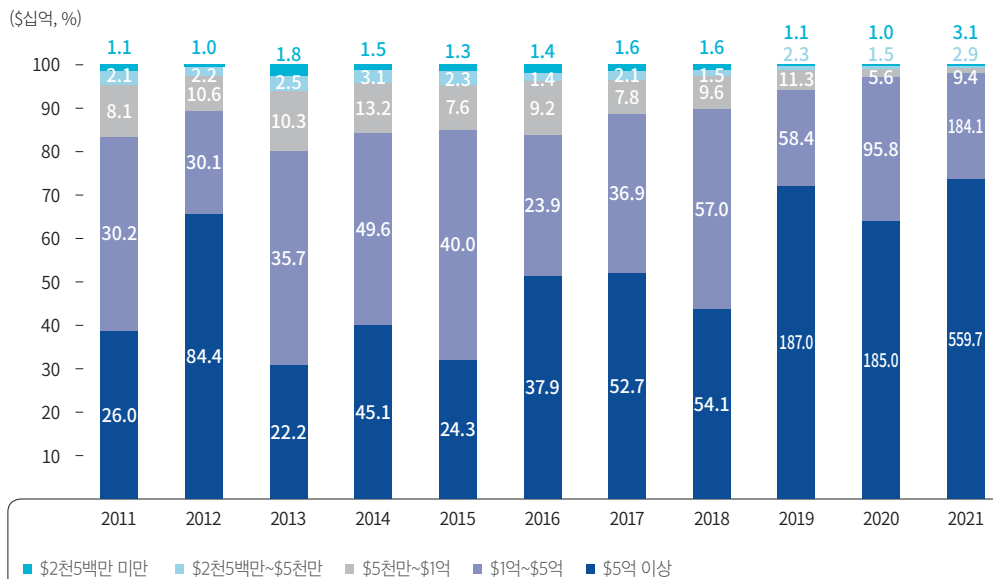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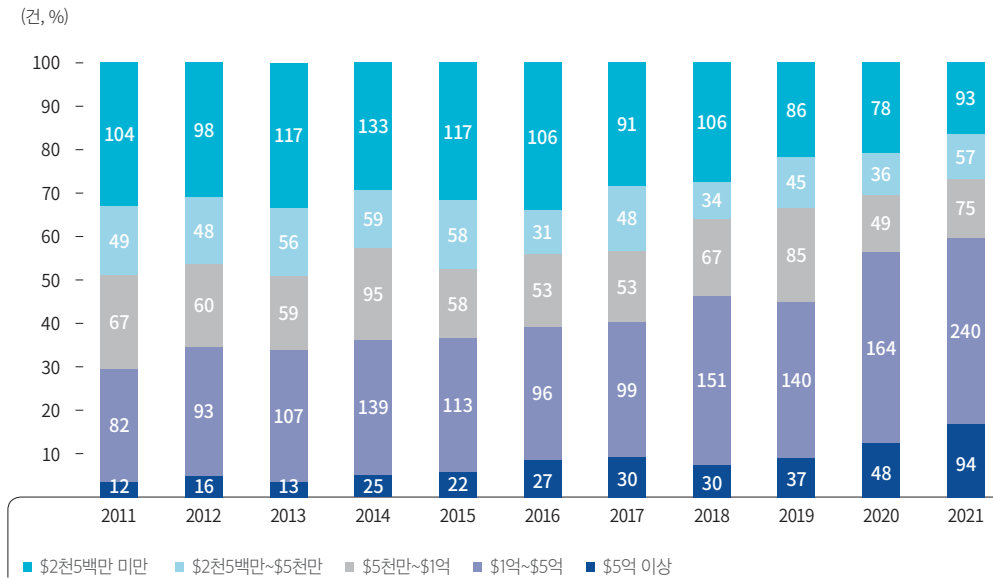
2021년도 회수 시장은 연초의 모든 현실적인 예측을 뛰어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1,612건의 7,741억 달러가 회수되면서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약 44%, 규모 기준으로는 약 168% 성장하였다. 회수 규모의 성장세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회수 건수의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간 회수 시장은 회수 건수의 수는 늘지 않으면서 규모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18~2019년 회수 규모가 103.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수는 3.4% 증가에 그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올해 증가한 회수 건수는 회수 거래가 몇 개의 예외적인 대규모 거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거래 규모에서 광범위한 성장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27 미국 VC 회수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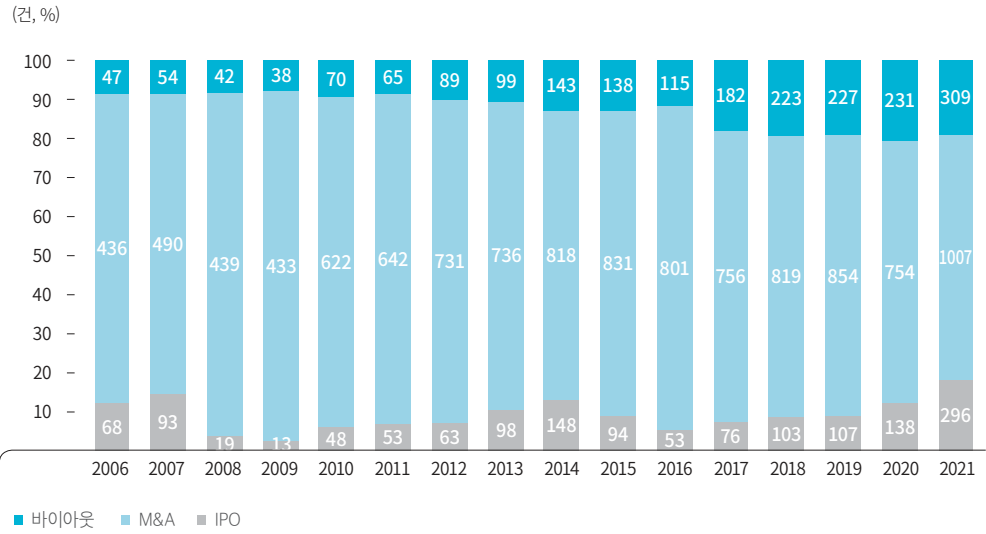
그림 28 미국 VC 회수 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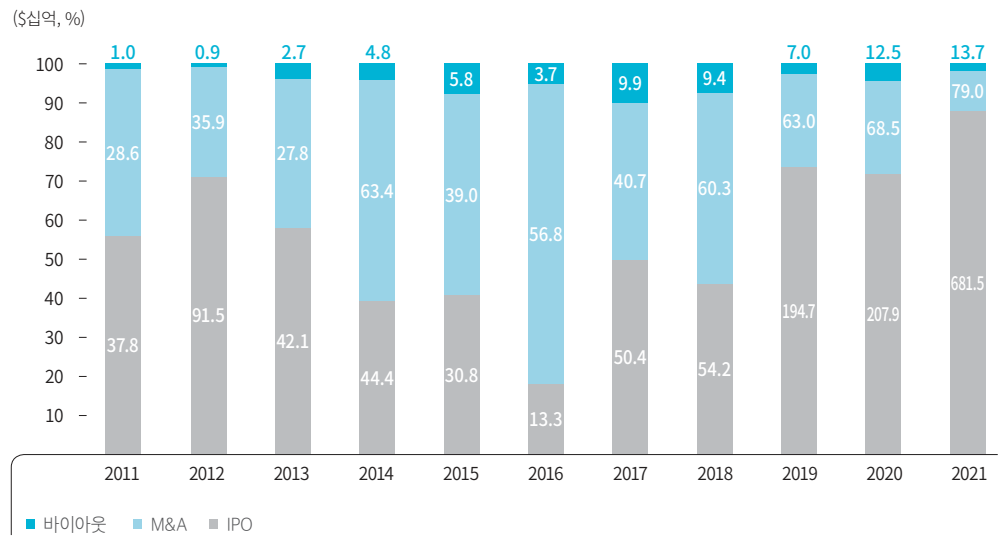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1년 회수 시장에는 IPO 유형의 회수 거래가 전체 회수를 거의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IPO를 통한 회수는 296건의 6,8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건수는 약 114%, 규모는 228% 성장하였다. 건수 기준으로 올 한해 약 23%에 불과한 IPO는 규모 기준으로는 약 90%를 차지하며, 올 한해 폭발적으로 성장한 회수 시장을 견인하였다. 2021년 주목할 만한 VC 투자 기업의 IPO로는 전기차 제조 분야의 Rivian(NASDAQ), 자율주행 분야의 Aurora(NASDAQ), SaaS 분야의 Gitlab(NASDAQ) 등이 있다.

그림 29 미국 VC 회수 유형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역사적으로 볼 때 올 한해의 회수 실적은 완전한 아웃라이어처럼 보이나 지난 5년 동안 VC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신생 기업의 성장과 성숙해진 생태계에 의해 이런 상승세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1년 전체 상장 기업의 가치 중간값과 유사한 3억 달러 이상의 미회수 기업들이 1,000개 이상 존재함을 감안할 때 2022년에도 회수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2021년 말 상장 시장이 보여준 변동성은 2022년 IPO 시장이 높은 불확실성을 겪을 수 있음을 예측하기도 한다. 상장 시장, 특히 소프트웨어 및 바이오테크 분야에서의 하락세가 길어지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높거나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기업가치 산정을 회피하므로 VC 투자받은 기업의 IPO 신청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환경하에서 2022년 1분기 IPO 시장의 현황이 전체 회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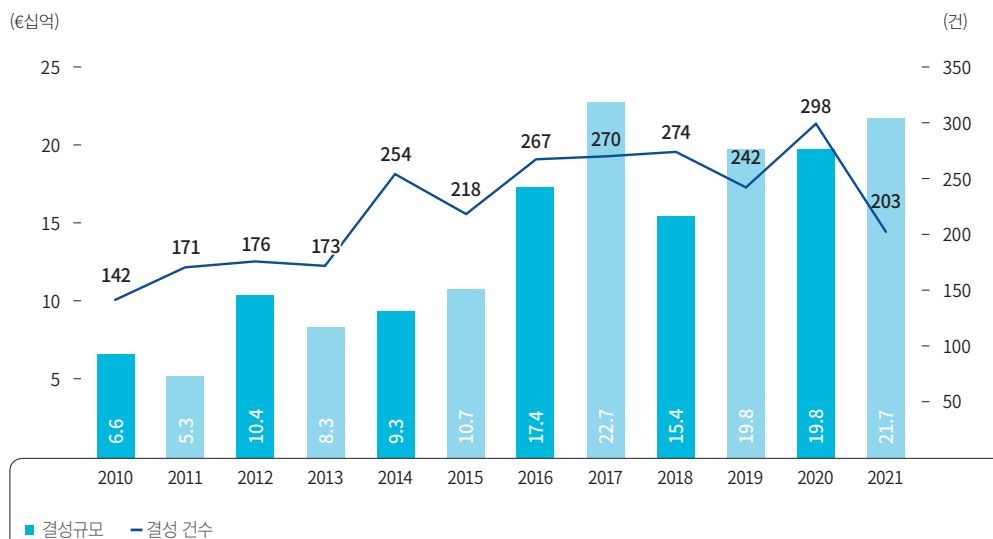
(European Venture Report, 2021년 4분기)

• European Venture Report는 PitchBook이 유럽 벤처 캐피탈 시장을 조사 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 결성(Fundrai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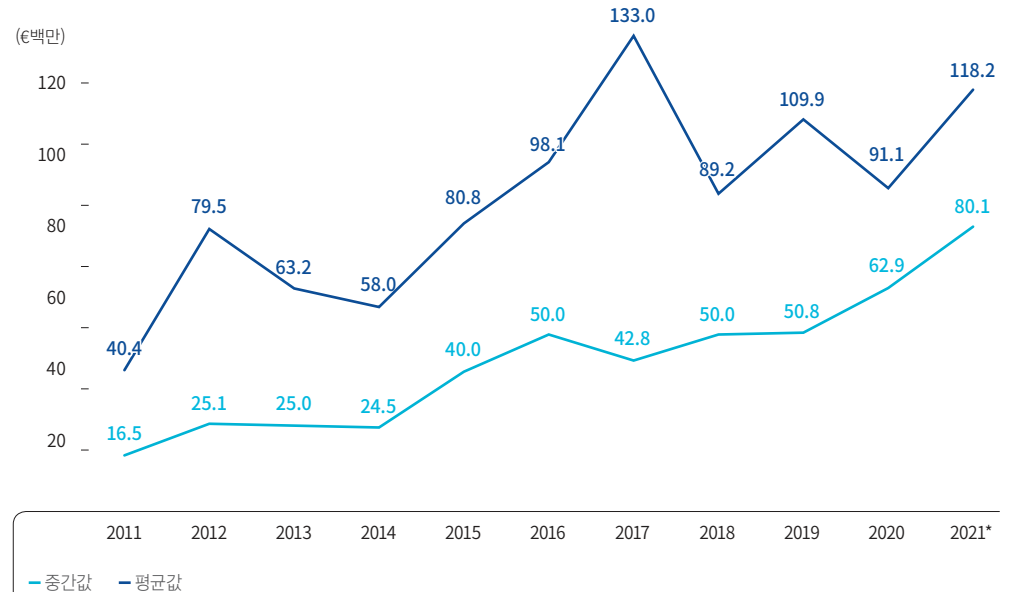
2021년 유럽에서는 217억 유로의 203개 펀드가 결성되면서 전년 대비 펀드 수는 약 32% 역성장하였으나 결성총액은 약 10% 성장하였다. 이에 결성총액은 연간 기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수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하였다. 2021년은 신형 및 기존 VC들이 대규모의 펀드를 결성하는 데 성공하며, 대형 투자 라운드의 밀거름을 마련하였다. 주목할 만한 펀드 결성으로는 Index Ventures가 결성한 성장 단계 투자에 집중하는 17억 유로 규모의 펀드 및 Cathay Innovation Fund II가 6억 4천950만 유로로 결성되었고, Baldetron Capital이 최근 결성에 성공한 5억 1천960만 유로 규모의 펀드, Accel이 유럽 및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위해 5억 3천910만 유로를 조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펀드 결성의 대형화로 인해 2021년 유럽 VC 펀드 결성총액의 중간값이 8천10만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하였다.

그림 1 유럽 VC 펀드 결성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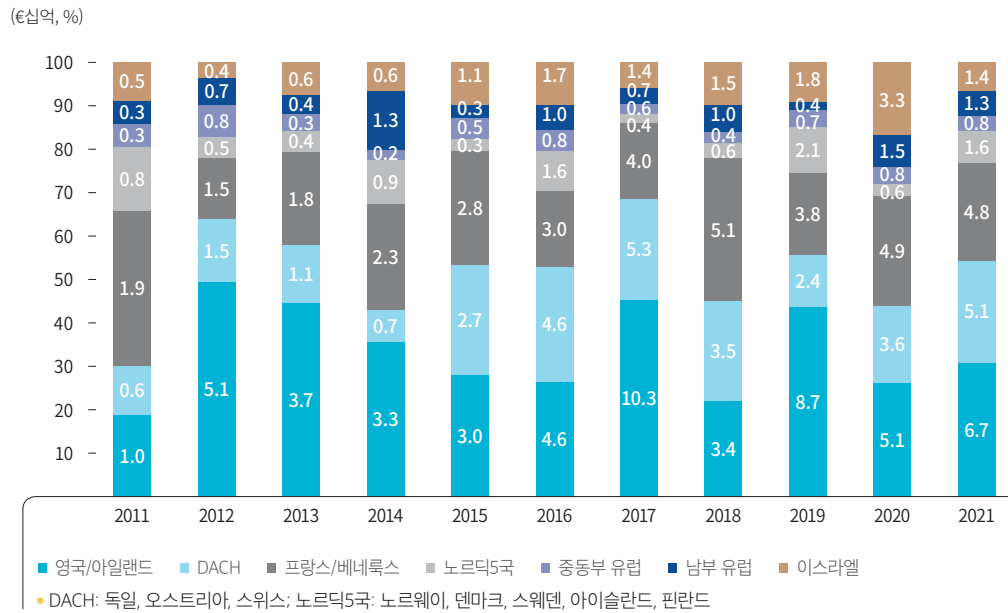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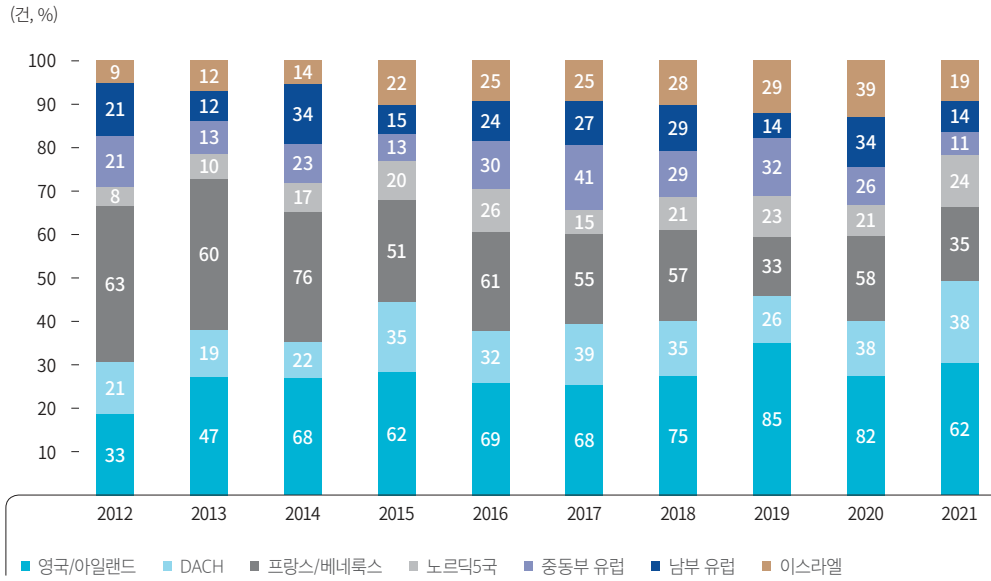
그림 2 유럽 VC 펀드 결성 규모 중간값과 평균값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지역별로는 2021년 VC 펀드 결성액의 대부분은 영국/아일랜드, DACH(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베네룩스 지역에서 대부분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세 지역에서만 총 167억 유로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어 전체 유럽 결성총액의 약 77%를 차지하였다. 세 지역 중에서도 영국/아일랜드 지역은 총 67억 유로 규모의 펀드 결성에 성공하며 가장 큰 규모의 펀드를 결성한 지역이 되었다.

그림 3 유럽 지역별 VC 펀드 결성 현황 : (상) 건수 기준 (하)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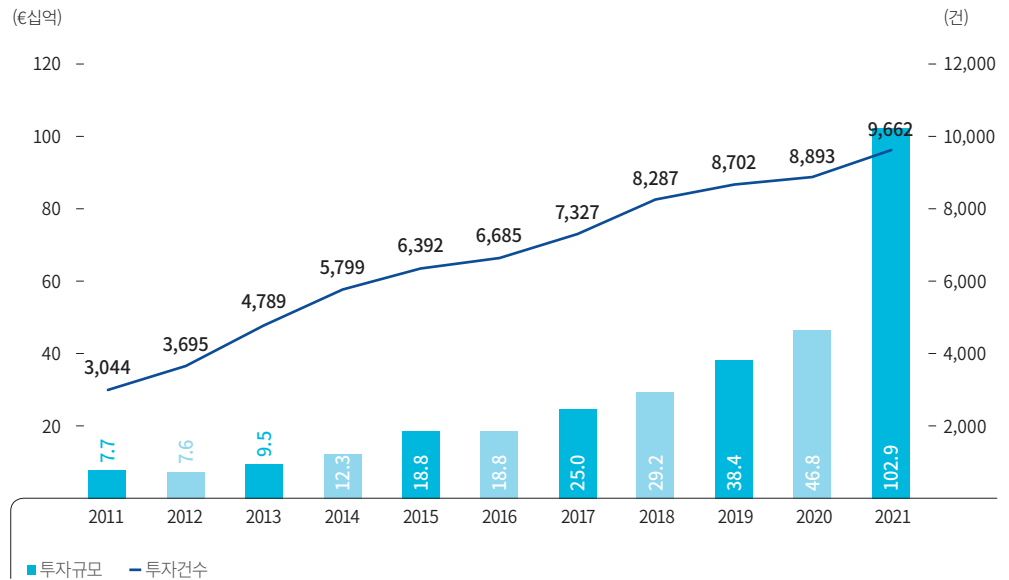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 투자(Deal)

2021년 유럽에서 9,662건의 약 1,029억 유로의 투자가 발생하며, 최초로 연간 1,000억 유로 투자의 시대를 열었다. 규모뿐만 아니라 건수 역시 추정된 딜 수를 포함할 경우 역사상 최초로 연간 10,000건을 돌파하며 규모와 건수 모두에 있어 역사적인 한 해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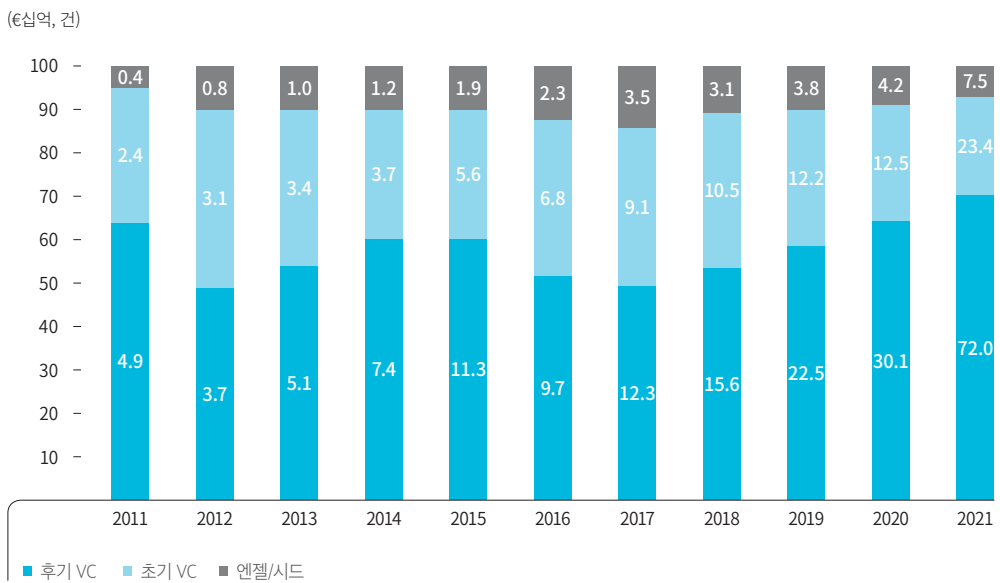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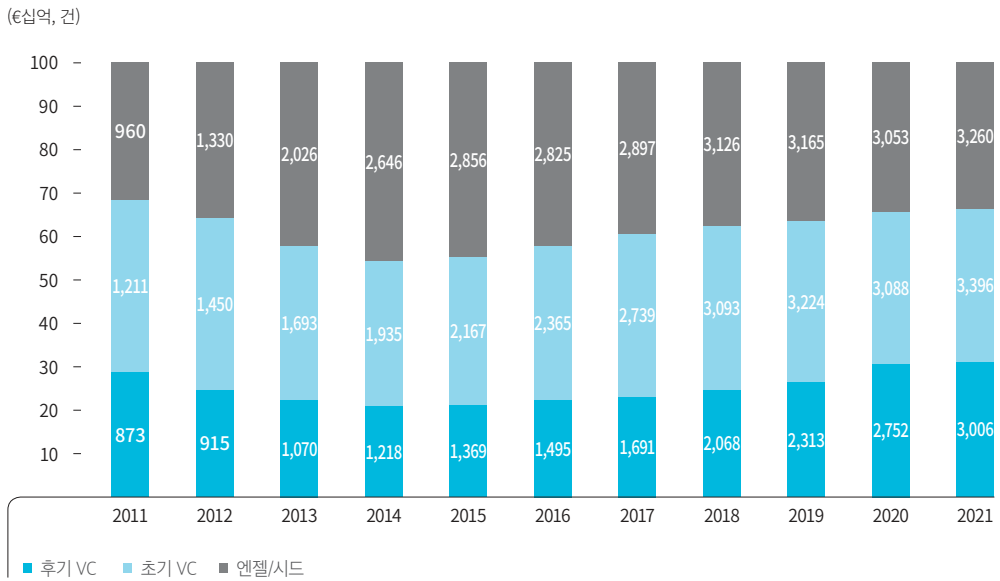
그림 4 유럽 VC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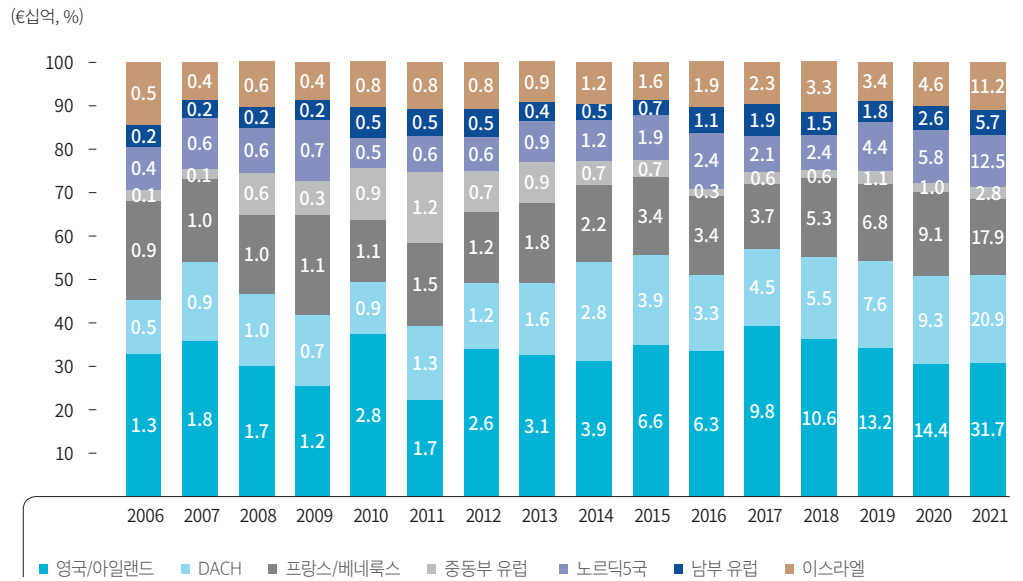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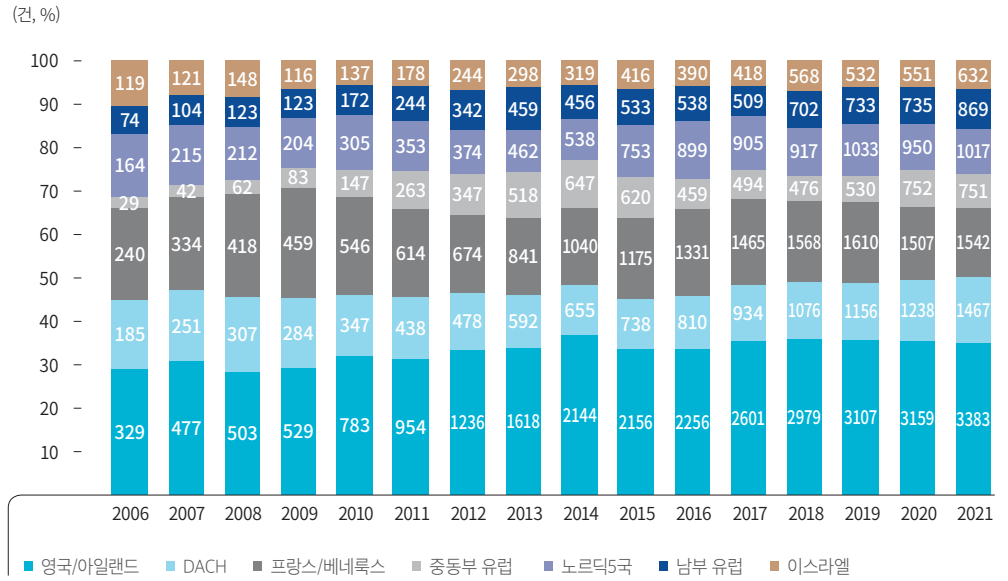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후기 VC 투자의 증가는 유럽 VC 생태계가 성숙되는 데 큰 기여를 한 가운데, 2021년 한 해 동안 후기 VC 투자는 전체 투자 규모의 약 70%에 달하는 720억 유로를 기록하며 전체 VC 투자의 성장세를 견인하였다. 또한 높은 기업가치를 지닌 기업들에 대한 대형 투자 라운드도 많이 발생하였는데, 스웨덴의 배터리 개발 업체 Northvolt가 23억 유로의 라운드를 마감하면서 올 한해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라운드로 기록되었다. 이외에도 핀테크 회사인 Klarana, 커뮤니케이션 툴 업체인 MessageBird, 데이터 처리 회사인 Celnois, 식료품 배달 플랫폼 Gillar, 챌린저 은행 N26 등이 올 한해 대형 투자 라운드를 마감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산업에 속한 대형 투자 라운드 유치 기업의 면면을 볼 때, 유럽의 VC 투자 생태계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5 유럽 VC 단계별 투자 현황



지역별 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투자 유치 최상위 3개 지역으로 영국/아일랜드(약 318억 유로, 3,383건), DACH(약 209억 유로, 1,467건), 프랑스/베네룩스(약 179억 유로, 1,542건)가 선정되었다. 이 세 지역은 유럽 전체 VC 투자의 약 68%인 706억 유로를 기록하며 대부분의 유럽 VC 투자를 이끌고 있다.

그림 6 유럽 지역별 VC 투자 현황 : (상) 건수 기준 (하)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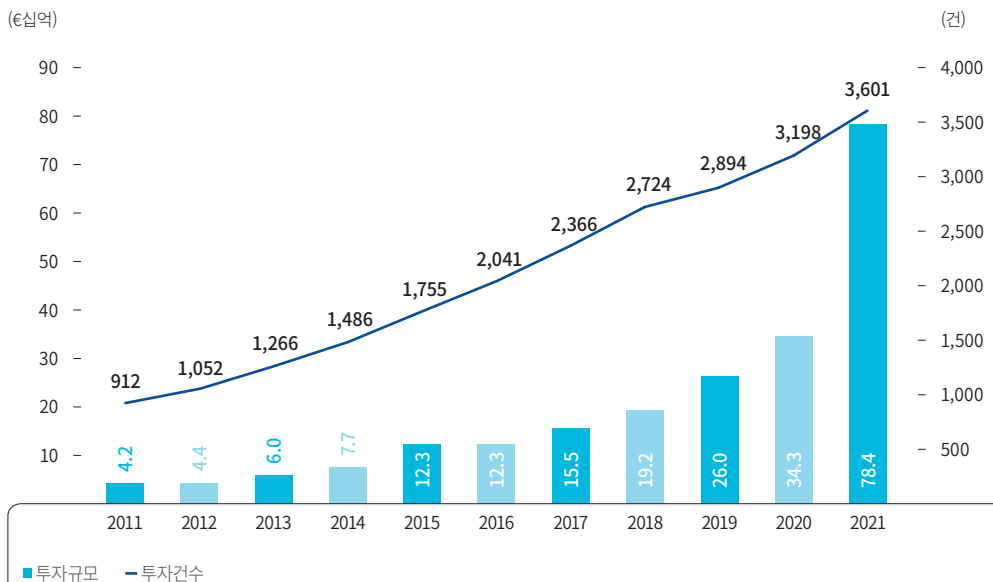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 ♣ VC 시장의 비전통적 투자자들(Alternative VC)\*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최근 투자은행, PE 운용사, 헤지 펀드, 연기금, 국부펀드 및 CVC를 포함하는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VC 생태계의 참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역시 이들은 3,601건의 784억 유로 규모의 딜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더 확장하고 있다.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팬데믹 기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반적인 기업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이런 영향을 덜 받거나 또는 오히려 이를 성장의 촉진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집행하였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시너지 효과를 낼 기회를 위해 신흥 스타트업에 관심을 보였다. 한 예로서, VC 투자를 통해 성장한 미국의 음식 배달 스타트업인 DoorDash(NYSE)는 2021년 4사분기에 베를린에 본사를 둔 식품 배달 업체 Flink에 대한 6억 6천250만 유로 규모의 투자 라운드를 선도하였다. 또한, 핀란드 본사를 Wolt를 70억 유로에 인수하기도 하였다. DoorDash는 미국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나, 최근의 이런 움직임을 볼 때 유럽 시장으로의 공격적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유럽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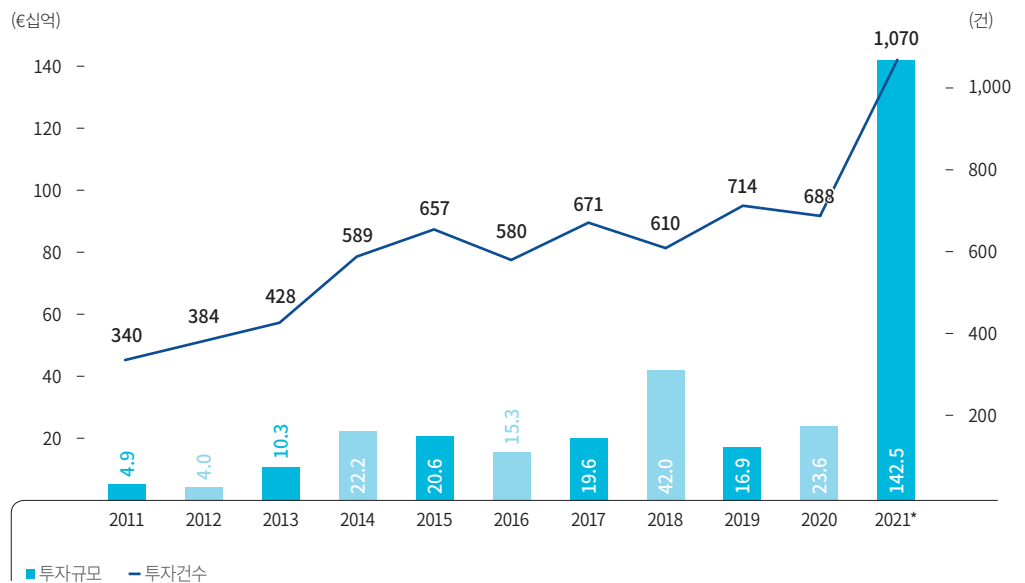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 ♣ 회수(Exit)

투자자와 기업가 모두 거품이 낀 시장 평가와 호의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회수를 서두름에 따라 2021년 한 해 규모 기준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성장한 약 1,425억 유로가 회수되었다. 2021년 회수 시장은 규모뿐만 아니라 건수 기준으로도 큰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회수 건수가 역사상 최초로 1,000건을 돌파한 1,070건을 기록하였다.

그림 8 유럽 VC 회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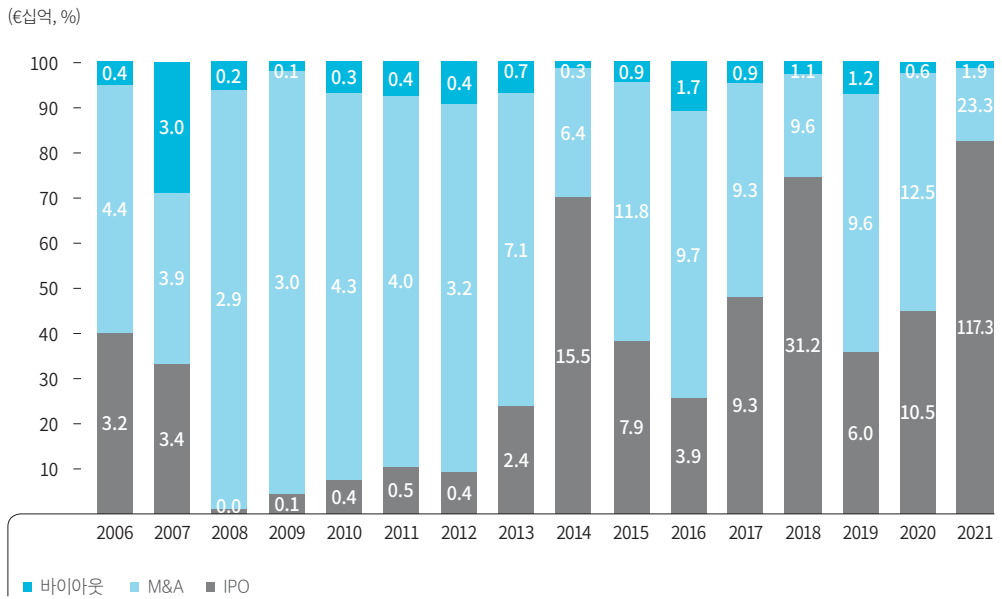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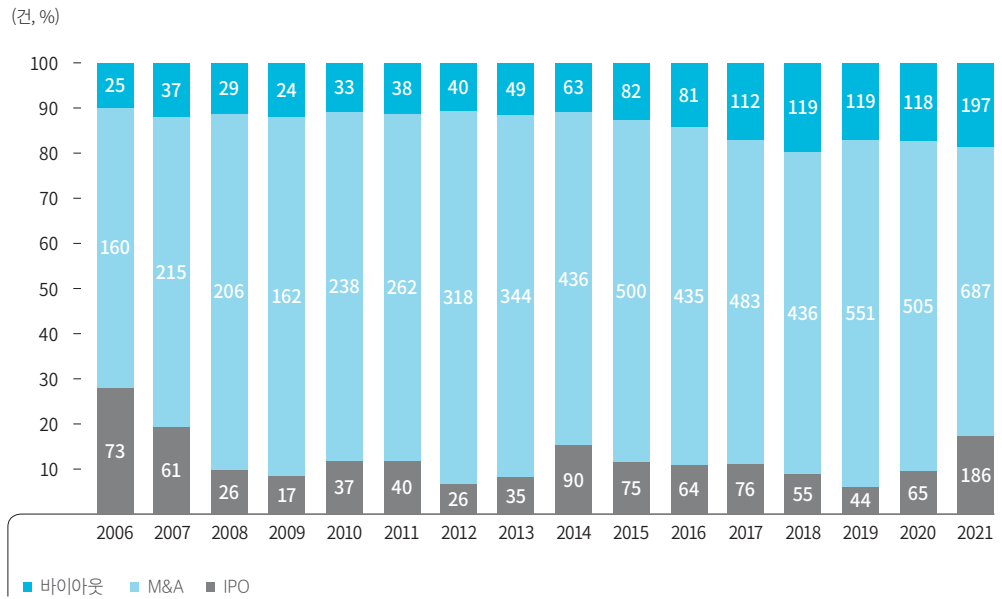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2021년 회수 시장은 특히, IPO를 통한 대형 회수 거래가 시장을 주도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스위스의 스포츠 도박 데이터 회사 Sportradar(NASDAQ), 스위스의 의복 회사 On(NYSE), 영국의 핀테크 회사 Wise(LON), 영국의 온라인 음식 배달 회사 Deliveroo(LON), 독일의 온라인 자동차 판매 회사 AUTO1 Group(FRA) 등이 있다.

최근 들어 IPO가 지배적인 회수 유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먼저, SPAC을 통한 역합병 및 직상장(Direct listing) 등의 대안적 IPO 수단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유럽의 런던증권거래소와 같은 증권 거래소들이 더 많은 기술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과거에는 미국의 주요 거래소에 상장한 유럽의 기술 기반 회사들을 유럽에 소재한 거래소로의 상장을 유도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전년 대비 거의 3배 이상 증가한 총 186건의 IPO를 통한 회수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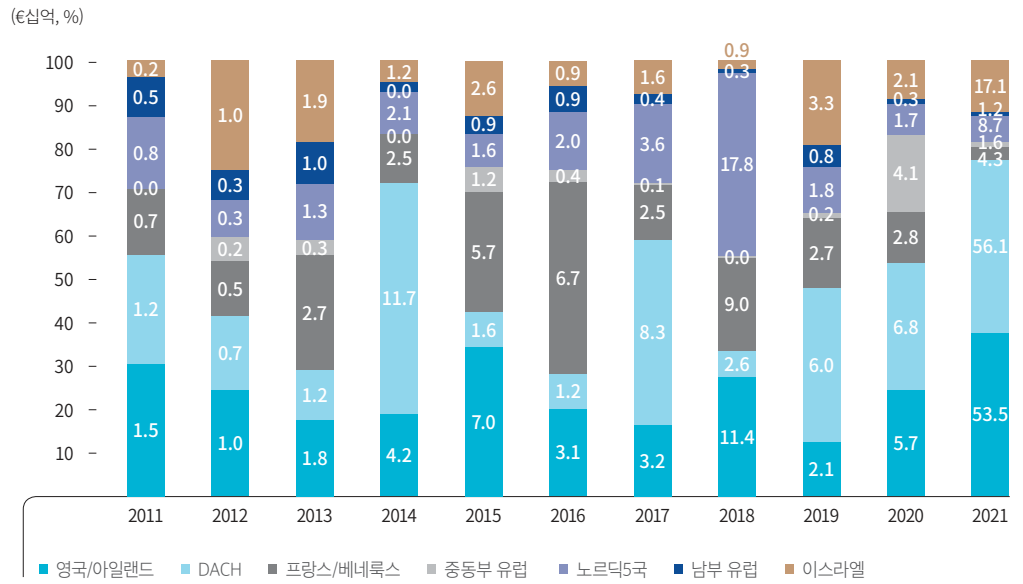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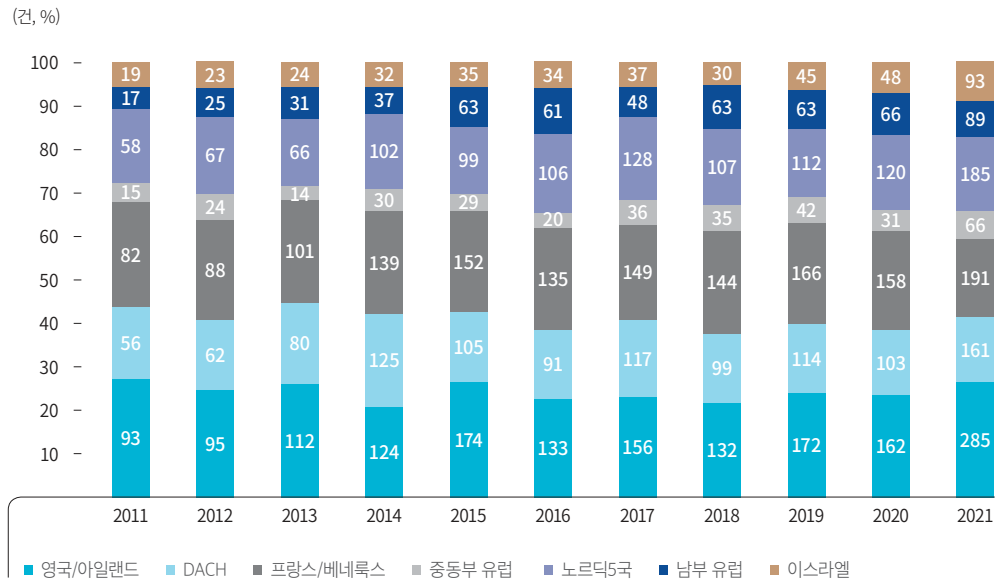
그림 9 유럽 VC 회수 유형별 현황: (상) 건수 (하) 금액 합계 기준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지역적으로는 DACH 및 영국/아일랜드 지역에서 각각 500억 유로 이상의 회수가 발생하며 전체 회수 시장을 주도하였고, 이스라엘이 171억 유로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운영체제(Work OS) 개발 회사인 Monday.com(NASDAQ), 항공 택시 개발 회사인 Liliium(NASDAQ), 온라인 자동차 판매 회사인 Cazoo(NYSE)의 대형 회수는 이스라엘, DACH, 영국/아일랜드 지역이 회수 규모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림 10 유럽 지역별 VC 회수 현황 : (상) 건수 (하) 금액 합계 기준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State of Venture Report, 2021년 4분기)

• State of Venture Report는 CBInsights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벤처 캐피탈 시장 트렌드를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 투자

2021년 세계적으로 총 34,647건의 6,208억 달러가 VC 시장에 투자되었다.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1% 성장하면서 전례 없던 규모의 투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4사분기에만 9,077건의 1,764억 달러가 투자되었는데 이는 2015년(1,714억 달러) 및 2016년(1,577억 달러)의 연간 기준 투자금액을 웃도는 수치이다.

2021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총 1,556건의 3,614억 달러의 메가딜이 발생하며, 전년도의 630건의 1,399억 달러에 비해 건수는 약 147%, 금액은 약 158%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올 한해 딜의 중간값 및 평균값은 각각 500만 달러 및 2천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67% 및 57% 성장하면서 투자의 대형화 현상이 한층 더 심화되었다. 4사분기로만 한정하면 메가딜은 미국에서 230건의 598억 달러, 아시아에서 117건의 310억 달러, 유럽에서 45건의 102억 달러, 라틴아메리카에서 11건의 19억 달러, 캐나다에서 5건의 9억 달러,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4건의 7억 달러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412건의 1,04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역별 VC 투자를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이 3,112억 달러, 아시아가 1,759억 달러, 유럽이 933억 달러, 라틴아메리카가 202억 달러, 캐나다 118억 달러,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85억 달러의 투자가 발생하였다. 4사분기만 한정하면 미국은 3,187건의 928억 달러, 아시아는 3,297건의 526억 달러, 유럽은 1,841건의 221억 달러, 라틴아메리카는 247건의 40억 달러, 캐나다는 188건의 24억 달러,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317건의 25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표 1 4사분기 글로벌 투자 유치 상위 10개 기업

기업명	지역	산업 분야	투자 규모 (\$십억)	투자자
Authentic Brands Group	미국	비즈니스 제품 & 서비스	3.5	CVC Capital Partners, HPS Investment Partners
J&T Express	인도네시아	자동차 & 운송	2.5	Boyu Capital, Hillhouse Capital Management, Sequoia Capital China, SIG Asia Investments 등
Commonwealth Fusion Systems	미국	에너지 & 유틸리티	1.8	Tiger Global Management, Breakthrough Energy Ventures, Eni Next, Future Ventures 등
DNE Group	중국	비즈니스 제품 & 서비스	1.5	Sequoia Capital, CPE, D1 Capital Partners, Partners Group, Warburg Pincus
Sierra Space	미국	산업재	1.4	Coatue Management, General Atlantic, Moore Strategic Ventures, AE Industrial Partners
GoTo	인도네시아	IT	1.3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Avanda Investment Management, Fidelity International 등
Lacework	미국	IT	1.3	Altimeter Capital, D1 Capital Partners, Sutter Hill Ventures, Tiger Global Management 등
Integrity Marketing Group	미국	금융	1.2	Silver Lake
Devoted Health	미국	헬스케어	1.1	SoftBank Group, Uprising Capital, Andreessen Horowitz, General Catalyst, Premji Invest
Chipone	중국	전기전자	1.0	Oceanpine Capital, GGV Capital, Beijing Singularity Power Investment Fund 등

출처 CBInsights State of Venture Report Q4 2021

## ♣ 유니콘

---

2021년에 새롭게 유니콘이 된 기업의 수는 총 517개로서 전년도의 134개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연말 기준 유니콘의 수는 959개로 1,000개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21년 신규 유니콘은 미국에서 304건, 아시아에서 115건, 유럽에서 63건, 라틴아메리카에서 14건, 캐나다에서 15건,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6건이 발생하였다. 2021년 연말 기준 지역별 유니콘의 수는 미국 494개, 아시아 295개, 유럽 117개, 라틴아메리카 27개, 캐나다 16개,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10개가 분포되어 있다.

2021년 말 기준 비상장 기업 중 가장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은 중국의 ByteDance(\$1,400억), 미국의 SpaceX(\$1,003억), 미국의 Stripe(\$950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4사분기 기준 신규로 유니콘 기업이 된 기업 중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비상장 기업은 미국의 GoodLeap(\$120억), 미국의 Digital Currency Group(\$100억), 미국의 Gemini(\$71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회수

---

2021년 한 해 동안 총 10,792건의 M&A, 950건의 IPO, 125건의 SPAC 상장을 통한 회수 거래가 발생하여, 각각 전년 대비 약 58%, 47%, 247% 상승하였다. 특히, SPAC 상장을 통한 회수가 주목할 만한데 건수뿐만 아니라 회수 가치의 중간값에서도 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의 7억 5천100만 달러 대비 약 113% 성장하였다.

2021년 4사분기 기준, 각 회수 유형별로 주목할 만한 회수 거래는 다음과 같다. 먼저, M&A의 경우 미국의 VillageMD가 158억 달러에 Walgreens Boots Alliance에 의해 M&A된 것과, 핀란드의 Wolt가 81억 달러에 DoorDash에 의해 M&A된 것, 그리고 미국의 BodyArmor가 80억 달러에 The Coca-Cola Company에 의해 M&A된 사례 등이 있다. 다음으로, IPO의 경우 미국의 Rivian이 665억 달러 규모의 IPO에 성공하였고, 브라질의 Nubank는 415억 달러, 그리고 미국의 GlobalFoundries가 250억 달러의 IPO에 성공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SPAC 상장의 경우 싱가포르의 Garbi가 396억 달러, 미국의 Aurora가 110억 달러, 그리고 미국의 Embark Trucks가 52억 달러 규모의 SPAC 상장에 성공한 것 등이 주요 사례이다.

# 유니콘 기업 현황

(CB Insights, 2022년 02월 02일 기준)

2022년 02월 02일 기준 The Global Unicorn Club에는 46개국에서 배출한 1,000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총 기업가치가 3조 3,07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한민국의 유니콘으로 CB Insights에 현재 등재된 기업은 총 11개\*이며 이들의 기업가치는 총 258억 달러에 달한다. 등재된 기업으로는 토스(74억 달러), 옐로모바일(40억 달러),마켓컬리(33억 달러), 위메프(23억 4천만 달러), 무신사(22억 달러), GP클럽(13억 2천만 달러), 옐앤피코스메틱(11억 9천만 달러), 에이프로젠(10억 4천만 달러), 야놀자(10억 달러), 쏘카(10억 달러), 두나무(10억 달러)가 존재한다.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인 데카콘 기업은 총 48개이며, 미국에 소재한 기업이 28개, 중국에 소재한 기업이 9개, 영국에 소재한 기업이 3개, 홍콩 및 인도에 소재한 기업이 2개, 그리고 호주, 독일, 인도네시아, 스웨덴에 각각 1개가 존재한다.

\* CB Insights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2월 중기부가 추가로 발표한 유니콘 기업(7개)은 티몬, 직방, 당근마켓, 버킷플레이스, 빗썸코리아, 리디, 기업명 비공개 1개사가 있다. 이들과 포함하면 2022년 2월 2일 기준 국내에는 총 18개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한다.

표 1 국가별 유니콘 기업 개수 및 기업가치 총계

(단위 : 개, \$십억)

국가	유니콘 기업 개수	유니콘 기업 가치 총계
미국	510	1,738.7
중국(홍콩 포함)	174	618.0
인도	59	179.1
영국	39	180.3
독일	25	72.2
프랑스	24	49.9
이스라엘	24	47.7
캐나다	17	44.9
브라질	15	35.6
싱가포르	12	17.5
한국	11	25.8
호주	6	50.6
일본	6	8.8
멕시코	6	16.4
스웨덴	6	60.5
인도네시아	5	27.9
아일랜드	5	9.1
네덜란드	5	14.3
노르웨이	4	4.8
스페인	4	6.3
스위스	4	5.6
벨기에	3	9.0
아랍에미리트	3	4.5

출처 CB Insights

\* (KVIC 주) 3개 이상 유니콘 보유 국가 기재



#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 모태 출자펀드

---

투자 산업 트렌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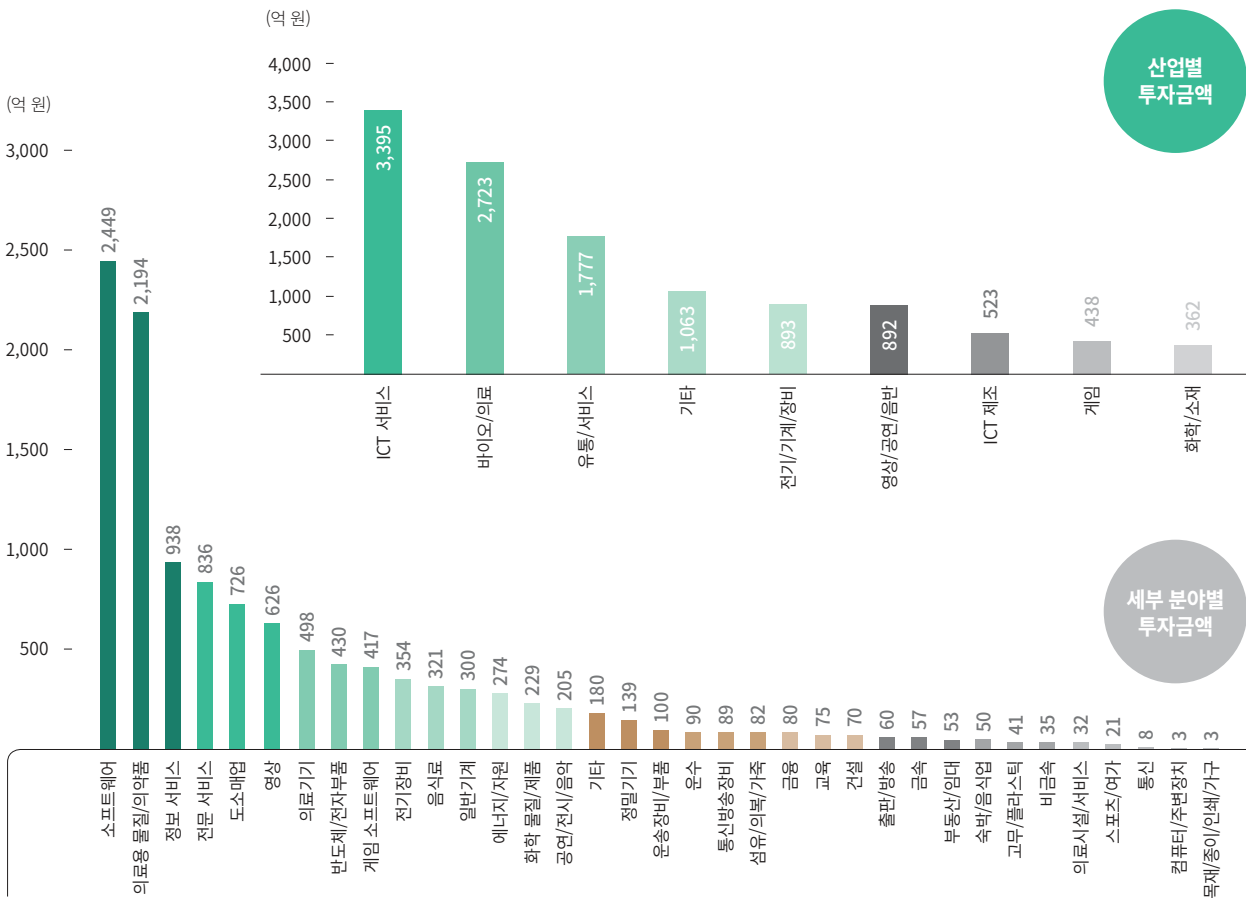
해당 보고서는  
분기별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1년 4분기(10~12월)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 2021년 4분기 산업별 투자 동향

2021년 4분기 모태 출자펀드는 645개(-22.5% YoY)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 1조 2,064억원(+10.1% YoY)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에는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이 증가 추이를 보여 왔으며, 4분기에는 1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0% 상승하였다.

산업별로는 ICT서비스(3,395억 원, +37.1% YoY), 바이오/의료(2,723억 원, -19.4% YoY)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프로젝트에 2천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두 업종에 투자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연초 이래 집중도가 계속해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2,449억 원, +49.0%YoY), 의료용 물질/의약품(2,194억 원, -24.8% YoY), 정보서비스(938억 원, +12.8%YoY) 순이었다. 소프트웨어나 의료용 물질/의약품의 경우 최근 5년간 항상 상위권을 기록해왔다.

그림 1 2021년 4분기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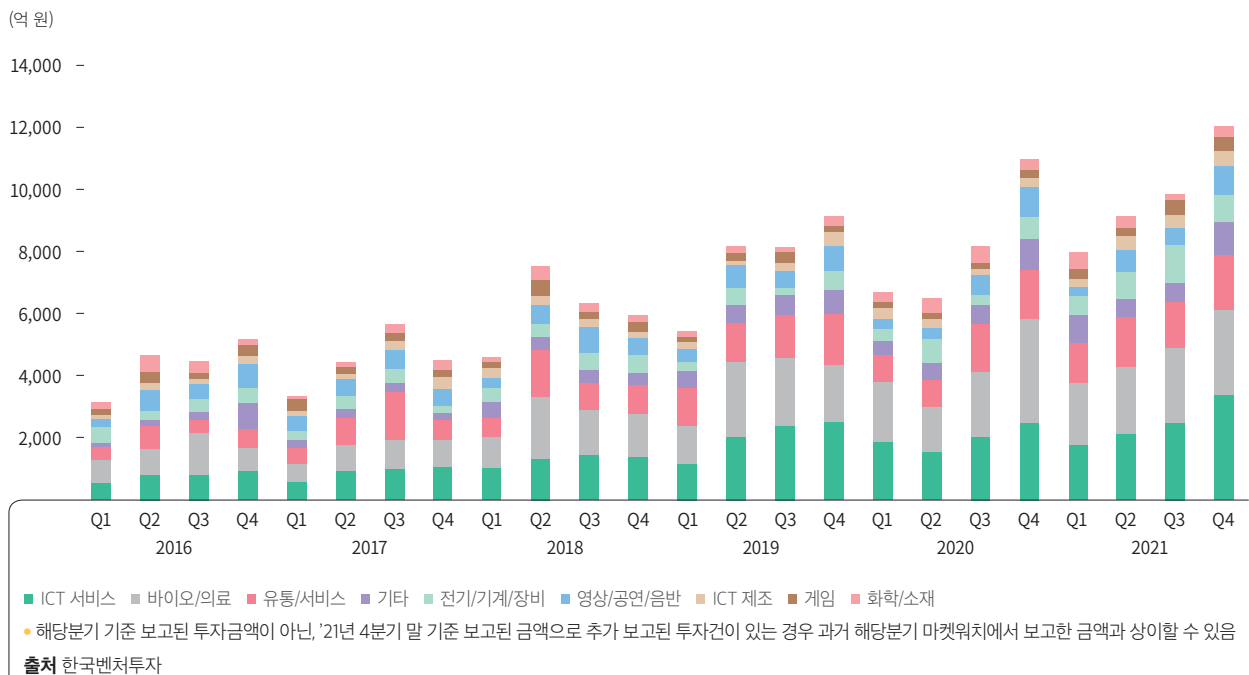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업체당 평균 투자금액은 1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억 원이 증가하였다. 평균 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ICT제조로 업체당 평균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한 29억 원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바이오/의료가 27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 감소했다. 영상/공연/음반의 경우 지난 5년간 업체당 평균 투자금액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해왔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투자금 대비 투자기업 수가 많아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타 업종 대비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분기 메가딜(기업당 투자금액 합계 100억 원 이상)은 11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4건이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건 감소했다. 최근 3년간('19~'21) 사례를 보았을 때 연중 주로 4분기에 메가딜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메가딜 중 건수 기준으로는 소프트웨어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일 금액으로는 면역항암제, 의류 도소매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2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그림 2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추이



지난 5년간 산업별 투자 규모 추이를 분기 기준 시계열로 살펴보면 바이오/의료,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분야가 타 산업 대비 투자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16년도 1분기 3개 분야의 투자 규모 비중은 53.7%였으며, 해당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18년도 2분기 이후 60%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표 1 2021년 4분기 모태 출자펀드 산업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개)

분류	투자금액	투자기업 수	평균 투자금액
<b>총 합계</b>	<b>12,064.3</b>	<b>645</b>	<b>18.7</b>
<b>ICT서비스</b>	<b>3,395.0</b>	<b>197</b>	<b>17.2</b>
소프트웨어	2,448.8	142	17.2
정보서비스	938.3	53	17.7
통신	7.9	2	4.0
<b>바이오/의료</b>	<b>2,723.3</b>	<b>101</b>	<b>27.0</b>
의료용 물질/의약품	2,193.7	77	28.5
의료기기	497.7	22	22.6
의료시설/서비스	31.8	2	15.9
<b>유통/서비스</b>	<b>1,776.7</b>	<b>95</b>	<b>18.7</b>
전문서비스	835.6	39	21.4
도소매업	726.2	45	16.1
운수	90.0	2	45.0
교육	74.9	8	9.4
숙박/음식업	50.0	1	50.0
<b>전기/기계/장비</b>	<b>892.8</b>	<b>49</b>	<b>18.2</b>
전기장비	353.8	14	25.3
일반기계	299.7	22	13.6
정밀기기	139.2	7	19.9
운송장비/부품	100.0	6	16.7
<b>영상/공연/음반</b>	<b>891.5</b>	<b>87</b>	<b>10.2</b>
영상	626.4	71	8.8
공연/전시/음악	204.9	12	17.1
출판/방송	60.3	4	15.1
<b>ICT제조</b>	<b>522.6</b>	<b>18</b>	<b>29.0</b>
반도체/전자부품	430.2	14	30.7
통신방송장비	89.5	3	29.8
컴퓨터/주변장치	3.0	1	3.0
<b>게임</b>	<b>437.6</b>	<b>24</b>	<b>18.2</b>
게임소프트웨어	416.6	22	18.9
스포츠/여가	21.0	2	10.5
<b>화학/소재</b>	<b>362.0</b>	<b>19</b>	<b>19.1</b>
화학물질/제품	229.0	12	19.1
금속	57.0	2	28.5
고무/플라스틱	41.0	3	13.7
비금속	35.0	2	17.5
<b>기타</b>	<b>1,062.9</b>	<b>55</b>	<b>19.3</b>
음식료	321.0	17	18.9
에너지/자원	273.6	7	39.1
기타	180.2	13	13.9
섬유/의복/가죽	82.5	7	11.8
금융	80.0	4	20.0
건설	70.0	1	70.0
부동산/임대	53.0	5	10.6
목재/종이/인쇄/가구	2.5	1	2.5

출처 한국벤처투자

• 기업 수 합계는 중복 제거 수치

표 2 2021년 4분기 산업별 주요 투자 KEYWORDS

ICT서비스	<p>#SAR 위성 시스템 및 탑재체 #모듈형 컨테이너 스마트팜 #푸드 콘텐츠 제작                  #AI 기반 수술 지원 소프트웨어 #산업용 AR솔루션 #OTT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AI서비스(AIaaS) #콘텐츠 IP 자산운용 및 거래 플랫폼                  #모바일 주문 솔루션 #AI 솔루션 #콘텐츠 기반 인바운드 여행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투자일임 #화물운송 매칭 플랫폼 #SI기반 경영컨설팅                  #자동차 보안솔루션 #당뇨 환자용 데이터 플랫폼 및 커머스 #업무자동화 솔루션                  #O2O 홈클리닝 서비스 #스마트워크 #초거대 규모 AI모델 개발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BaaS #비주업 협업 SaaS                  #SaaS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 #ADAS레이더 #건강검진 O2O 및 건강관리플랫폼                  #온라인강의 오픈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시스템 #음성AI콜봇 #암호화폐 지갑                  #온라인 실시간 강의 플랫폼 #미국 디지털 신분 검증 #청소년기 디지털 치료제</p>
바이오/의료	<p>#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건강기능식품 #CAR-T 치료제 #혈관신생억제 관련 신약                  #염증성 장 질환 및 간염증 치료제 #항암치료제 #mRNA 치료제                  #anti-HGF 항체치료제 및 CAR-T 면역세포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면역치료제                  #복지용구 제조/유통 #항암치료제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당뇨/비만 치료제 #근감소증 치료제 #심혈관 중재 시술로봇 #CD47 면역항암제                  #엑소좀 기반 약물전달 플랫폼 #피부 인체 적용시험 #알츠하이머 치료제                  #항암제 및 면역질환 치료제 #혈액 응고 진단기기 #마이크로바이옴 CDMO                  #정신건강 디지털 치료제 #면역항암제 및 항암백신 #뇌파 분석 솔루션 #고분자 필터                  #레이저 및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의료기기 #재활로봇 및 원격재활 플랫폼                  #심전도 측정 웨어러블 기기 #유전자 치료제 #심리상담 서비스</p>
유통/서비스	<p>#피부미용기술 정보 플랫폼 #AI 기반 미디어테크 플랫폼 #골프의류 제조/유통                  #의류 도소매 중개 플랫폼 #명품 커머스 플랫폼 #전통주 정기구독 #차량 호출서비스                  #EV 전문 카셰어링 서비스 #온라인 코딩 교육 플랫폼 #식품 관련 브랜드 커머스                  #역직구 플랫폼</p>
전기/기계/장비	<p>#VR사용자의 인지/감정 인식 헤드셋 제조 #태양광 인버터 제조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VRFB)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LCD 제조 관련 절단공정장비 #공작기계용 부품 #온실가스 자원화를 위한 정밀기기 제조                  #산업용 3D 로봇 자동화 솔루션 #광학부품</p>
영상/공연/음반	<p>#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유아용 오디오 콘텐츠 및 완구                  #방송드라마 제작 #OTT용 콘텐츠 제작 #엔터테인먼트 #웹툰/웹소설 제작                  #여행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기획 및 eSports 구단 운영</p>
ICT제조	<p>#스크린골프 센서 #제너다이드 #반도체 칩 클라우드 디자인 플랫폼                  #하이패스 차로제어 시스템 구축</p>
게임	<p>#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 #온라인게임 #게임 테스트 분석 마케팅 플랫폼                  #모바일게임</p>
화학/소재	<p>#DME 및 수소 생산/판매 #화장품 OEM 및 라이브커머스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절연/방열 표면처리 #콜드체인용 물류박스 제조/판매/유통</p>
기타	<p>#대체육 제조/유통 #분말식품 제조/유통 #건강기능식품 제조                  #푸드업사이클 기반 식품제조 #폐기물 수집운반 #재생에너지 스팀 #폐유/폐정제유 처리                  #리사이클 의류 제조/유통 #간편결제솔루션 #암호화폐 은행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건설</p>

출처 한국벤처투자

